



외대학보



2 논란 속에 세워진 설립자 동상 6 백년관 들여다 보기 7 내 인생에 쓰인 여행 한 장 12 꿈을 향해 차근차근, 스포츠행정가 고은정



사진: 총괄지원팀 제공

랜드마크 건설! 글로벌배움터를 지킬 백년관 개관

드디어 백년관이 개강과 함께 문을 연다. 백년관 내부에는 학생들을 위한 △콘퍼런스홀 겸 강당 △국제세미나실 △미디어열람실 △스튜디오 등이 배치된다. '백년관'이란 명칭은 지금까지 우리학교의 60년 역사에 앞으로의 40년을 더해 100년 역사를 이뤄나갈 것을 다짐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 명칭은 350여명이 자원한 명칭 공모전을 통해 채택됐다. 글로벌배움터 기획건설팀 측은 "백년관 공간의 대부분을 수업 및 자치공간으로 활용할 것"이라며 "공간 부족으로 학업에 집중하기 힘들다는 학생들의 불만이 현저히 줄어들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건물 내 동선을 최소화해 이동이 편리할 것"이라며 백년관 설계의 장점을 설명했다. >6면에 계속

임정혁 기자 89ginpaldduk@hufs.ac.kr

성적평가 원칙변경, 한 학기 보류 후 재논의 확정

2014년 2학기부터 적용될 예정이었던 성적지침 변경안이 한 학기 유보된다. 학교 측은 다음 학기에 학생대표자와 함께 새로운 성적지침 변경안의 적용 시기와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 재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6월 일방적인 성적지침 원칙변경 공고 후 두 달여 만의 일이다. 그러나 백분율 산출방식은 변경된다. 지금까지는 '65+ (평점평균 -1.0)×10'으로 산출했지만 앞으로는 평점평균 환산기준표를 따를 예정이다. 이외의 성적평가 원칙은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지난 학기 우리학교는 SBS 8시 뉴스를 통해 졸업생의 75.8%가 A학점을 받는 등 '학점 인플레이션'을 지적받아 성적 평가 방식이 문제로 대두됐다. 이에 학교는 2학기부터 절대평가를 실시하는 수강생 기준을 20명 미만에서 15명 미만으로 낮추는 등의 변경안

을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변경안에는 재수강을 할 경우 A0를 초과하는 학점을 받을 수 없는 '학점 상한제'도 포함됐다.

보류 및 재논의 확정 후 김미자 서울배움터 학사종합지원팀장은 "학점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우리학교의 대외적인 이미지 실추를 방지하고, 학내 구성원 간 이해관계를 고려해 적절한 안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또 서울배움터 총학생회는 SNS를 통해 "우리학교의 특성에 맞는 성적지침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한다"며 "학생들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이에 정지용(공과·전자공학 10) 군은 "갑작스런 성적평가 원칙 변경으로 날벼락 맞은 심정이었는데 재논의가 확정돼 다행"이라며 안도감을 표했다.

유다송 기자 89baquillullae@hufs.ac.kr

학제개편, 더 나은 외대를 향한 발걸음

2학기의 시작과 함께 우리학교도 학사제도의 개편이 이뤄졌다. 변경사항은 크게 이번 학기부터 적용될 내용과 학부의 신설, 기존 두 학과의 통합으로 나뉜다. 이번 학기부터 교양과정위원회가 미네르바 교양대학으로 승격돼 운영된다. 한편 공과대학의 컴퓨터공학과와 디지털정보공학과가 컴퓨터·전자시스템공학부로 통합되고 L&T학부, 지식콘텐츠학부가 신설돼 2015학년도 신입생을 선발한다.

지금까지 우리학교의 교양 수업을 맡고 있던 교양과정위원회는 미네르바 교양대학으로 승격됐다. 최종찬 미래위원회 위원장은 "순수한 교양 교육이라는 교양과정위원회의 취지가 점점 흐려졌다"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 교양대학으로 승격했다"고 미네르바 교양대학의 설립 취지를 전했다. 이러한 변경은 지난 4월 15일 미래위원회의 기본방안 작성으로 시작해 8월 1일 양 배움터에 교양대학 학장이 발령받으며 마무리됐다.

미네르바 교양대학의 출범과 함께 교양 과목들을 △기초교양 △핵심교양 △선택교양 총 세 영역으로 개편해 단과대학별 교양 이수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최 위원장은 "강의중심교수제와 특임교수제를 도입해 강의의 질을 제고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어 미네르바 교양대학으로의 변화에 대해 "이번 단과대학으로의 승격을 통해 교양 교육의 기본 정신을 제고하는 질적 전환의 계기가 되고 우리학교의 위상을 높이는 데에 기여했으면 한다"며 기대를 표했다.

한편 2015학년도부터 서울배움터에는 L&T(Language & Trade)학부가 신설된다. L&T학부의 신설은 7월 28일 학칙개정과 함께 확정됐다. L&T학부는 언어와 통상을 결합한 융·복합 학과로 앞으로 국제 통상과 국제 업무에 특화된 학생들을 길러낸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글로벌배움터에도 지식콘텐츠학부가 신설됐다. 인문대학 내에 신설되는 지식콘텐츠학부에 대해 채희락 인문대학장은 "인문대학이 다른 단과대학에 비해 상대적으로 시대 흐름에서 벗어났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에 "인문학을 바탕으로 시대에 맞게 응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학문을 고안해 낸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인문대학은 철학과, 사학과, 언어인지과학과로 이뤄진 순수 인문학과 지식정보콘텐츠학부로 이뤄진 응용 인문학으로 나뉘어 운영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채 학장은 "학교 운영상의 방침으로 인해 인문대 내 다른 과의 인원을 줄여 새 학부를 만들었다"며 "인문대학의 한 축을 이끌어가기엔 인원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고 인원수 증가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글로벌배움터의 또 다른 변화는 컴퓨터공학과와 디지털정보공학과와의 통합이다. 합쳐진 두 학과는 컴퓨터·전자시스템공학부로 운영된다. 한현구 공과대학장은 "컴퓨터공학과와 디지털정보공학과와의 다소 떨어진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유사한 두 학과를 합병하기로 결정했다"라며 두 학과의 합병 이유를 밝혔다. 이어 한 학장은 "두 학과를 분리하는 최근 추세를 따르지 않고 과감한 결정을 내린 만큼 좋은 결과를 기대한다"며 컴퓨터·전자시스템공학부에 대한 기대를 표했다.

이번 학제개편에 대해 이경재(통번역·마인어 14)군은 "학교가 좋은 방향으로 발전하는 것 같다"며 특히 "하루빨리 전보다 향상된 교양 수업을 듣고 싶다"라고 미네르바 교양대학에 대한 기대를 밝혔다.

임정혁 기자 89ginpaldduk@hufs.ac.kr

새로운 외대학보 이제 당신의 손으로 만드세요!

외대학보사 90기 수습기자 및 사진기자 모집

모집기간 : 2014년 9월 1일(월)~10월 8일(수)
모집대상 : 양 배움터 4학기 활동이 가능한 학생

지원서 마감일 : 10월 8일(수)
필기시험 및 면접일 : 10월 11일(토)
합격자 발표일 : 10월 12일(일)

지원서 수령 및 제출

- ▶서울배움터 학생회관 401호 02-2173-2504
- ▶글로벌배움터 학생회관 212호 031-330-3112

문의사항 연락처 : 임수진 편집장(010-4257-9732)



학내 브리핑

이제 교내 컴퓨터이용 시
로그인 필수!

10월부터 양 배움터에서 컴퓨터를 이용할 때 로그인을 해야 접속이 가능하다. 서울배움터는 총 716석, 글로벌배움터도 일부에 로그인 기능을 설치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서울배움터 커뮤니티인 휴스라이프에는 '외부인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기기의 성능이 떨어진다'는 불만을 토로하는 글이 가득했다. 이에 박도석 서울배움터 디지털서비스팀장은 "학번 로그인 기능으로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컴퓨터 사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

위안부 할머니들 돕는
중고 책 베풀시장

서울배움터 총학생회는 이번 달 11일부터 12일까지 국제학사 앞에서 베풀시장 '내외의강'을 연다. 이번 베풀시장은 전공서적, 교양서적만 대상으로 하며 원가의 10% 가격으로 판매한다. 또한 수익금은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한국외국어대학교 학생 일동'으로 전달된다. 베풀시장이 열리기 전까지 국제학사 450호 총학생회실에서 책을 기증받으며 기증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가방 10개와 영화 예매권 5장을 증정할 예정이다.

취업정보 놓치지 말고 챙기세요

이번 달 2~3일 서울배움터 오바마홀에서 오전 10시에서 오후 5시까지 취업박람회가 열린다. 이번 박람회에는 국제기구와 창업관련 부스가 신설돼 보다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행사기간 동안 KDB생명, 포스코, 현대해상 등 총 40여개의 기업 부스와 이력서클리닉, 한국무역협회, 국제기구상담, 서울창업지원센터 등 총 8개의 컨설팅 부스가 설치된다.

또한 25일 글로벌배움터에는 백년관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취업박람회가 진행된다. 행사에는 매출액기준 1000대 주요기업, 강소기업, 외국계기업의 인사 관계자가 참여할 예정이니 취업난이 심각한 요즘 취업박람회에서 좋은 정보를 꼼꼼히 챙겨보자.

지난 3월부터 2학기가 시작된 지금까지 고(故) 김흥배 박사의 동상 설치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본지는 동상을 둘러싼 갈등 시작부터 현재 학내 구성원들의 입장까지 알아보고자 한다.

◆ 동상 설치 논란의 시작은

학교 설립자 고(故) 김흥배 박사의 동상 설치 소식이 알려진 것은 지난 3월. 우리학교는 개교 60주년 기념식 초청장을 통해 동상 제막식에 대한 계획을 알렸다.

김 박사는 '국제적 인재를 키우겠다'는 취지로 1952년 동원육영회를 설립, 2년 후인 1954년 우리학교를 개교했다. 1983년에는 정부에 그 공을 인정받아 국민훈장 중 가장 높은 등급인 무궁화장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동상 제막식이 논란이 된 것은 그의 친일 행적 때문이다. 김 박사는 1938년 노다피복 공장을 세워 일본군에 군복을 납품했고, 1943년 태평양전쟁 중에는 일본의 전쟁 지원단체인 국민총력 경성부연맹의 이사를 지내기도 했다.

지난 2008년 민족문제연구소는 친일인명사전을 편찬하며 김 박사를 수록 예정자 명단에 포함시켰으나 조사가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최종 명단에서는 빠졌다. 그러나 지난 4월 민족문제연구소 측은 "친일인명사전 수록 기준이 매우 엄격해 편찬 당시에는 빠졌으나, 그가 친일 행적을 한 것은 명백하다"고 말했다.

◆ 서울배움터에서 글로벌배움터로 가기까지

학교와 재단 측에서 동상 설립에 대한 의사를 내비치자 서울배움터 총학생회(이하 총학)는 즉시 비상중앙운영위원회를 소집했다. 이어 '김흥배 박사 동상 제막식 반대 성명서 채택' 안건을 전체 학생대표자회의에 상정했고 다음 아고라를 통해 1100명의 반대 서명을 받았다. 이후 총학은 "김인철 총장과의 면담에서 동상 설립 무기한 연장 과 함께 학생 대표자와 협의할 것을 약속받았다"고 밝혔다. 지난 4월 17일 학교 측이 동상 설치를 시도하자 중앙운영위원회는 약 200여명의 학생들과 함께 천막을 설치해 동상 터를 사수하기도 했다.

한 차례 설치 저지 후, 지난 5월 총학은 이사회 및 총동문회와 면담을 진행했으나 결국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총학은 "전 외대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공청회 진행을 제안했지만 총동문회는 회

설립자 동상 글로벌배움터에...

동상 설치까지의 120여 일 정리



▲지난 달 1일 글로벌배움터 명수당에 설립자 김흥배 박사의 동상이 세워졌다. 동상 뒤에는 훼손을 우려한 감시카메라와 가로등도 설치됐다.

신에 불응했다"고 전했다.

서울배움터에 동상을 설치하지 못한 학교 측은 글로벌배움터 백년관 준공식 때 동상을 설치할 것이라고 글로벌배움터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에 통보했다. 비대위와 중앙운영위원회는 즉각적으로 학교에 반대 의사를 표했다. 또한 설립자 동상 설치 관련 긴급 성명서를 발표하고 '김흥배 설립자 동상 설치 반대 서명운동'을 진행해 천여명의 학생들에게 서명을 받았다. 그러나 계속되는 반대에도 지난 8월 1일 법인재단과 총동문회 측은 오전 7시 경 학생들의 눈을 피해 명수당에 동상 설치를 완료했고 감시카메라도 설치했다.

◆ 친일vs.학교 설립...팽팽한 의견 차

학생들의 반대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설치를 강

행한 재단 측은 "친일 행적이 문제가 될 수는 있지만 전 재산을 투자해 한국 최초의 외국어대학교를 설립한 공이 더 크다"는 입장이다. 서울배움터 김범(국제 11) 총학생회장은 "친일행적이 있는 사람의 동상을 세우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그 과정에서 학생들의 입장은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한 긴급 성명서를 통해 "설립자 동상을 설치하는 것이 정당하다면 학생들에게 알리고 대낮에 할 수 있었던 일을 왜 새벽에 설치하고 심지어 동상 훼손을 우려하며 주위에 CCTV와 가로등을 설치했나"며 총동문회와 재단을 규탄했다.

재단 측 관계자는 "동상 철거와 관련해서는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학교 측의 입장은 아직 명확하게 나오지 않은 상태다. 조국인(국제지역·프랑스 09) 비대위장은 "총장과의 면담을 가질 예정이며 서울배움터 총학생회와 합동중앙운영위원회를 진행해 사태를 알릴 책자를 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서울배움터 총학생회와 글로벌배움터 비대위 측은 동상과 관련한 글을 꾸준히 올리고 있는 상태다. 학생들도 계속해서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다. 한수진(경상·경제 12) 양은 "학교는 재단의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것인데 학생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고 동상 설치를 강행한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 우리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다

친일파 동상 설치하는 우리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화여자대학교, 성신여자대학교, 고려대 학교 등 친일파들이 설립하거나 총장을 지낸 학교는 여러 곳이며 그 동상이 세워진 학교도 많다.

이화여대 학생들은 지난 해 김활란 초대 총장의 친일행적에 문제를 제기하며 학내 본관 앞에 세워진 동상에 포스트잇을 붙이는 철거 요구 플래시몹을 진행했다. 또한 고려대학생들은 '각시탈 프로젝트'를 열었다. 각시탈 프로젝트는 고려대 설립자인 인촌 김성수를 미화한 교학사 교과서의 역사 왜곡을 알리는 활동이다. 특히 이 프로젝트에서는 동상을 대체할 인물을 학생들에게 추천받는 '동상 다시 세우기 공모전'이 있었다.

익명을 요구한 우리학교 학생 이모(26) 군은 "서명운동을 통해 확고한 반대의를 표명했지만 앞으로 타대 학생들처럼 더 적극적인 행동을 통해 동상 철거를 위한 의지를 보여야한다"고 말했다.

김다정 기자 88daisy@hufs.ac.kr

시민인문대학 인문학을 통한 동아시아 소통

◆ 강좌 기간 : 2014년 9월 16일(화) - 12월 16일(화)

[제2기, 14강의]

◆ 강의 시간 : 주 1회, 화요일 오후 7:00-9:00

◆ 강의 대상 : 일반 시민 및 직장인, 학생

◆ 강의 장소 : 동대문도서관 2층 시청각실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회관 2층 강연실

◆ 수강신청 기간 : 8월 25일 - 9월 12일 (※ 선착순 60명)

◆ 수강신청 방법

에버러닝 (http://everlearning.sen.go.kr)에서 회원가입 후,

또는, 일본어대학 e-메일 (hufsjp@hufs.ac.kr)로,

이름 / 연락처 전화, e-메일 / 수강희망강의 순서번호 기입 신청.

◆ 수강료 및 교재비 : 없음

◆ 수료증 : 10강의 이상 수강생에게 수여.

◆ 도서선물 : 7강의 이상 수강생에게 증정.

[시민인문대학] "인문학을 통한 동아시아 소통"강좌 일정

순서	강좌 일정	강의 주제	강사	장소
1	2014년 9월 16일(화)	한·중·일 문화의 차이와 일본적 발상	최재철 (한국외대 교수)	동대문도서관2층 시청각실 (신설동역 6,10출구)
2	23일(화)	한·일 역사의 교차와 문화 이동	정재정 (서울시립대 교수)	이하동일
3	30일(화)	하이쿠(俳句)를 통한 한·일 문화 소통	최종희 (한국외대 교수)	
4	10월 7일(화)	영상 예술을 통해 보는 한·일 소통	정형재 (한남대 교수)	
5	14일(화)	맛장구로 보는 일본어의 커뮤니케이션	김동규 (한국외대 교수)	
6	21일(화)	일본 다도(茶道) 사상	박전열 (중앙대 교수)	
7	28일(화)	언어 보편성에서 본 한국어의 특징	허 용 (한국외대 교수)	한국외대 교수회관 2층 강연실(외대앞역 6출구)
8	11월 4일(화)	풍속화(風俗畵)를 통해 본 한국문화	문형진 (동덕여대 교수)	이하동일
9	11일(화)	한국 현대문화와 동아시아	채호석 (한국외대 교수)	
10	18일(화)	동아시아 문화의 뿌리중국 신화(神話)의 세계	정재서 (이화여대 교수)	
11	25일(화)	현대 중국과 유교(儒敎)	양일모 (서울대 교수)	
12	12월 2일(화)	동아시아 의사소통의 각도에서 본 중국어의 화와 실	맹주역 (한국외대 교수)	
13	9일(화)	동아시아 세력 전이와 역사 갈등	전인갑 (서강대 교수)	
14	16일(화)	중국 지도자들의 인문외교 한사(韓詩)외교	박재우 (한국외대 교수)	

*문의사항은 동대문도서관(dmlib.sen.go.kr) 정보자료과(Tel 02-2254-1946~303), 또는 일본어대학(Tel 02-2173-2297) 담당자 (e-메일: hufsjp@hufs.ac.kr)

주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일본어대학 · 중국어대학 · 한국학센터 후원 : 동아시아문화교류협회·시사출판교육 협력 : 동대문도서관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2015학년도 전기 신입생 모집 광고(안)

◆ 특징

- 신입생 입학장학금(성적에 따른 차등 지급)
- 성적 장학금(재학생 80%)
- 외국인 유학생 장학금(학교별, 학기별 선발 지급)
- 한국학과 외국인 장학금
- 외부 기관 장학금(POSCO, KIEP-GPAS, KOGAS 등)
- 본교출신조교 장학금 제도
- 3+1제도(재학중 1학기 외국대학 수학 후 학점인정)

◆ 입학설명회

캠퍼스	서울캠퍼스	글로벌캠퍼스
일 정	2014.9.25(목), 12시	2014.9.23(화), 12시
장 소	대학원 2층 브릭스 화상강의실	도서관 3층 세미나실

◆ 원서접수

구 분	특별전형	일반전형
원서접수	14.9.29(월)~10.6(월)	14.11.24(월)~11.28(금)

◆ 문의처

TEL : 02)2173-2448, 2449, 2434
FAX : 02)2173-3369

E-Mail : hufsgsias@hufs.ac.kr
Website : http://gisias.hufs.ac.kr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우리학교와 우리은행, 협력 양해 각서(MOU)체결



사진:홍인영 기자

▲김인철 우리학교 총장과 이승우 우리은행장이 협력 양해 각서 서명 후 포즈를 취하고 있다.

지난 8월 25일, 본관 203호 이덕선 회의실에서 우리학교와 우리은행이 협력 양해 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MOU 체결은 이번 해 2월부터 계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체결식에는 이승우 우리은행장, 김인철 총장, 신상원 우리은행 이문동 지점장 등이 참석했다.

김유경 국제교류처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 우리학교와 우리은행은 우호적인 협력 관계를 약속했다. 체결식은 관계 당사자들의 개회사, 양해각서 서명, 기념촬영, 기념품 교환, 폐식사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우리학교와 우리은행의 관계는 2006년 주거래 은행 계약을 맺으며 시작됐다. 그 후 우리은행은 도서관, 식당, 원스톱서비스센터 같은 우리학교 각종 시설에서 사용 가능한 신용카드 겸 학생증 발급으로 학생들에게 보다 선진화된 금융 서비스를 제공했다.

또 우리은행 동문회에서 학교발전기금 1억 5천

만원을 약정한 후 수차례 장학금을 지급해 우리학교와 관계를 돈독히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김유경 국제교류처장은 “양 기관의 상호 협력과 미래를 위한 협약체결을 위해 외대를 방문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하다”며 “체결식 이후에도 관계자들끼리 이야기를 진행시켜 협약의 자세한 부분을 완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우 우리은행장은 “좋은 인연을 이어갈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우리은행이 우리학교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어 김인철 총장은 “지난 8년 동안 우리은행이 신속하고 정확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해준 덕에 우리학교에 많은 도움이 됐다”며 우리은행에 대한 감사를 표했다. 덧붙여 양 기관이 지속적인 이해를 도모하고 협업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전했다.

유다송 기자 89baquibullae@hufs.ac.kr

새 옷 갈아입은 통학버스를 만나보세요



사진:홍인영 기자

▲우리학교의 로고가 새겨진 새 차량의 전면과 후면

글로벌배움터 학생 및 교직원 통학버스와 교내 순환버스 총 37대가 출고한 지 3년 이내의 차량으로 모두 변경됐다. 이 과정에서 모든 버스에 우리학교 로고를 새기고 교색인 청록색으로 도색했다. 또 지금까지 세 회사가 이 버스들을 관리해왔으나 이제 한 회사가 모든 버스를 관리하게 된다.

교직원 및 학생들의 통학을 책임지던 이 버스는 대부분 출고된 지 5년에서 8년 정도 지난 노후 차량들이었다. 그러다보니 오래 전부터 많은 학생들이 불만을 제기해왔다. 학교 측은 이러한 불만들을 적극 수렴해 이번 버스 개편 사업에 반영했다. 새 차로 교체된 37대의 버스는 교내순환버스 4대, 학생들을 위한 통학버스 29대, 교직원을 위

한 버스 4대로 운영된다.

따라서 앞으로 교내에는 학교 로고를 단 차량만 운행돼 학생들이 보다 소속감과 자부심을 느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이시형(공과·산업경영 12)군은 “새 차를 타고 등교할 수 있게 돼서 기쁘다”며 차량 교체에 반색을 표했다.

이번 사업에 대해 강기훈 글로벌배움터 학생복지처장은 “통학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라는 김인철 총장의 뜻에 따라 저비용 고효율의 결과를 창출해내려 노력했다”고 밝혔다. 또 “이를 통해 학생들이 학교에 대해 더 자부심을 가졌으면 한다”며 기대를 표했다.

임정혁 기자 89ginpadduk@hufs.ac.kr

글로벌배움터 국제지역대학 수도권대학특성화사업 선정

지난 6월 30일 ‘2014 대학특성화사업’에 글로벌배움터 국제지역대학의 ‘Locality 기반 글로벌 창의인재 양성 사업단(이하 L-사업단)’이 선정됐다. 이에 따라 사업단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 간 매년 5억, 총 25억 원의 정부 예산을 지원 받는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하는 이번 대학 특성화사업은 정원감축을 조건으로 대학의 특성화를 지원한다. 이 사업은 대학 정원의 10% 축소를 조건으로 하는 지방대학특성화사업과 4% 감원을 조건으로 하는 수도권대학특성화사업으로 나뉜다.

그러나 우리학교는 현재 정원을 유지할 때 얻는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해 정원감축 없이 총 8개의 지원서를 제출했고 그 중 국제지역대학의 L-사업단이 최종 선정됐다. 이에 L-사업단 측은 “우리학교의 특성을 잘 나타내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정원을 감축하지 않았는데도 선정될 수 있었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뛰어난 지역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L-사업단은 국제지역대학의 프랑스학과, 러시아학과와 중앙아시아학과, 브라질학과, 인도학과를 각각 마그레브, 유라시아, 중남미, 남아시아라는 광역 단위로 선정했다. 이 광역 단위들을 바탕

으로 ‘광역특화전공’을 개설할 예정이다. 이 광역특화전공은 국제지역대학 학생들만 수강할 수 있고 이중전공 개념으로 적용된다. 이로 인해 국제지역대학 학생들은 선택 가능한 이중전공이 늘어나는 셈이다.

광역특화전공에는 공통기반과목, 해당 지역의 전문적인 지식을 배우는 특화전공과목, 해당 지역에서 널리 통용되는 공용어나 현지어를 학습하는 제2전공어 과목 등이 포함된다. 또한 광역특화전공을 이수하는 학생에게는 ΔL-fellowship ΔL-현지 탐방 프로그램 ΔL-인턴십 ΔL-여름학교 ΔL-Challenge공모전의 혜택이 주어질 예정이다.

특성화사업에 대해 김세희(국제지역·브라질 14)양은 “이중전공처럼 단순히 다른 언어를 배우는 것과 달리 내가 원하는 지역에 대해 좀 더 심층적이고 전문적으로 배울 수 있는 것 같아서 좋다”며 광역특화전공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번달부터 L-사업단의 광역특성화전공에 대한 설명과 해외 인사초청 특강이 시작될 예정이니 관심있는 학생들은 미리 챙기길 바란다.

이진형 기자 89matteo@hufs.ac.kr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2015학년도 전기 석사/박사/석·박사통합 학위과정 신입생 모집

1. 2015학년도 전기 입시전형 일정

구 분	원서접수	전형일시	합격자발표	등록기간(예치금)	비고
특별전형	2014.09.22(월)~09.26(금)	10.11(토) 10:00	10.30(목) 14:00	11.03(월)~11.07(금)	
일반전형	2014.11.10(월)~11.14(금)	11.29(토) 10:00	12.18(목) 14:00	12.22(월)~12.26(금)	

2. 지원자격

가. 특별전형

- 1) 석사 및 석·박사통합 :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2015년 2월 취득 예정인 자로 학사과정 총 평점 평균이 3.0(4.5만점 기준) 이상인 자
- 2) 박사 : 국내·외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2015년 2월 취득 예정인 자로 석사과정 총 평점 평균이 3.5(4.5만점 기준) 이상인 자

나. 일반전형

- 1) 석사 및 석·박사통합 :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2015년 2월 취득 예정인 자
- 2) 박사 : 국내·외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2015년 2월 취득 예정인 자

※ 참고) 특별전형과 일반전형의 차이

- 지원자격상에 평점 평균 제한이 있는 점이 다르며 기타사항은 동일하거나 유사합니다.
- * 특별전형은 지원자격상에 일정한 평점 평균 제한이 있으며, 일반전형은 평점 평균 제한없이 자유롭게 지원이 가능합니다.
- 시기적으로 특별전형을 먼저 실시하고 이어 일반전형을 실시합니다.

3. 접수방법

- STEP 1 - 대학원 홈페이지 인터넷 원서작성 및 접수
- STEP 2 - 인터넷 접수 후 출력물 및 구비서류 제출(우편, 방문 등)
※ 반드시 접수기한 내에 인터넷 원서접수와 서류 제출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4. 전형방법 : 서류심사 및 구술시험(면접)

5. 전형장소 : 서울캠퍼스(자세한 고사장 및 고사일은 추후 공지)

6. 기타사항

- 가. 다양한 교내·외 장학금 혜택(HUFSan, 입학성적우수, 성적우수, 외국인유학생, 학과근로조교, 재외동포재단, 학생회임원, 교학처근로조교, 정부초청, 한국장학재단, 기타 기업체 및 단체 장학금 등)
- 나. 본 대학원과 학점교류 협정을 체결한 국내·외 타 대학원에서 학점교류 가능
- 다. 대학원생 국제저명학술지 논문게재 연구비 지원
- 라. 대학원생 국내·외 학술지 논문게재 연구비 지원
- 마. 우수박사학위논문 연구비 지원
- 바. 전문연구요원 제도 운영
- 사. 기타 본교 도서관 및 시설 이용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학원 홈페이지 www.hufs.ac.kr/gra 및 모집요강 참조

8.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교학처 사무팀(일반대학원)

TEL. 02-2173-2386 FAX. 02-2173-3369
(우)130-79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세계 젊은이들의 소통의 장을 마련하다

2015 세계 대학생 모의 유엔 총회 유치

우리학교가 하버드대학교와 함께 2015 세계 대학생 모의 유엔 총회(2015 Harvard World Model United Nations, 이하 월드문)를 우리나라에서 공동 주최한다. 이번 유치로 2006년 북경대, 2010년 국립대만대, 2011년 국립싱가포르대에 이어 아시아에서는 네 번째,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개최된다.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고 2015년 3월 16일부터 20일까지 5일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우리학교는 전부터 각종 모의유엔총회와 끈끈한 인연을 맺어왔다. 우리학교가 주최하는 한국의 국어대학교 모의국제연합(HIMUN, 이하 하이문) 총회는 55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모의유엔총회다. 매년 열리는 하이문 총

회는 전국 대학생·대학원생의 참여로 이뤄지며 정부 부처와 각종 국제기구, 연구원, 대사관, 기업 등으로부터 후원 및 협찬을 받는다.

또 우리학교는 2011년에 글로벌배움터에서 제 17회 전국대학생모의유엔회의(이하 전대모)를 개최하기도 했다. 전대모는 1995년에 시작한 모의 유엔총회로 유엔한국협회가 주최하고 외교통상부 및 한국국제협력단(KOICA)에서 후원한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고 권위 있는 모의유엔총회로 여겨진다. 당시 65개 대학교에서 450명의 학생들이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글로벌배움터를 방문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우리학교는 2012년부터 월드문 유치에 도전했다. 두 번의 실패 후 새로 부

임한 김인철 총장의 개교 60주년 사업의 일환으로 이번해 다시 한 번 유치를 신청해 결국 성공했다.

우리학교는 월드문 사무국을 만들어 본격적인 준비에 착수했다. 이번 달부터 전국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월드문 사무국과 의장단을 모집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월드문이 외대만의 행사가 아니라 한국 대학생들의 행사라는 의미가 담겨있다. 또한 이번 주부터 브라이언 므와라니아(Brian Mwarania)월드문 사무총장과 함께 관계 기관에 협조 요청을 진행하고 시설을 답사할 예정이다.

우리학교의 월드문 유치를 주도한 이상환 LD학부장은 “이번 기회를 통해 우리학교를 대내외적으로 홍보할 수 있다”며 “글로벌 대학으로서의 위상

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라고 설명했다. 또 “국가 이미지 제고에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참가자들이 자비로 생활하기 때문에 경제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불안한 한반도에서 세계 각국의 대학생들이 모여 평화를 의논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크다”며 “제 24회 월드문의 성공적인 개최를 바란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상환 LD학부장은 “외대인들이 이번 기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다른 나라 대학생들과 호흡하는 소통의 장을 경험해 봤으면 좋겠다”고 학생들에게 당부의 말을 전했다.

이진형 기자 89matteo@hufs.ac.kr

또 한 번의 도약을 준비하는 외대

HUFS 특성화사업 시행

이번 달부터 미래위원회가 주관하는 ‘HUFS 특성화사업’이 시행된다. 이 내부 특성화사업은 매년 시행되며 총 17억 가량 투자될 예정이다. 이 사업은 이번 해 9월부터 사업단을 공모하며 11월 이전에 적합한 사업단을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사업단들은 겨울방학부터 준비를 시작해 2015년 3월에 실질적인 사업을 시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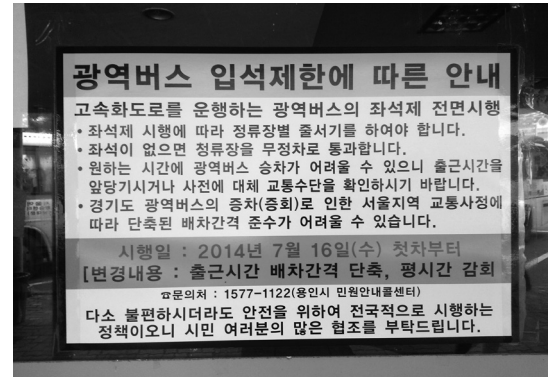
사업 분야에는 △미래형 교육 모델(SMART-learning) 개발 △단일전공 특성화 △융복합·연계전공 개발 △외국인 학생 인바운드 사업 △교양대학 교육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등이 있다. 이러한 사업들에 대해 최종찬 미래위원회 위원장은 “우리학교는 오래 전부터 뛰어난 선진 기술을 사용해 어학을 교육시키는 학교로 유명하다”며 “이 명성에 걸맞게 미래형 교육 모델을 시행해 학습효과의 극대화를 이뤄낼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서울배움터에 비해 글로벌배움터는 외국인 수가 현저히 적다”며 “인바운드 사업을 통해 외국인 학생 수를 늘릴 것”이라고 계획을 전

했다. 단일전공 특성화 사업은 특수 인재 양성을 위한 교과과정을 개발하게 된다. 또한 사회적 수요와 전공 확장성을 충족하는 교과과정을 개발하면서 단일학과 신설을 위한 예비단계의 사업으로 융복합·연계전공도 개발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교육 발전에 필요한 환경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대학 교육의 체질을 개선하고, 향후 교육부 지원 특성화사업 등 각종 지원 사업에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 위원장은 “내부 특성화사업을 통해 학교 발전의 원동력이 축적될 것이고 다양한 학문 분야가 활성화돼 사회적 수요가 있는 창의적 인재가 육성될 것”이라며 특성화사업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진형 기자 89matteo@hufs.ac.kr

통학 걱정은 잠시 접어두세요



▲광역버스 입석제한이 시행됨에 따라 글로벌배움터 승차장에는 위와 같은 안내문이 붙었다.

지난 8월 21일부터 수도권 광역버스의 입석이 한시적으로 허용됐다. 광역버스 입석 금지로 학생들의 통학에 지치 않은 혼란이 우려됐으나 학생들의 걱정을 어느 정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월 16일 고속도로를 경유하는 모든 버스의 입석이 금지됐었다. 세월호 사건의 여파로 인해 광역버스 입석운행의 안전불감증 문제가 제기됐고 이로 인해 입석이 금지된 것이다. 이 때문에 광역버스로 통학하는 학생들은 좌석이 없어 버스를 놓

칠 경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에 대원고속 모현 사업소에서는 “1303과 1117은 고속도로를 지나지 않아 이번 법안에 적용되지 않고, 1113과 1005는 이용하는 학생 수가 적어 불편을 겪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또한 “많은 학생과, 통근자가 이용하는 1500-2와 1150은 각각 22대에서 25대, 9대에서 11대로 증차했고 1150은 배차간격을 25분에서 15분으로 줄였다”고 답했다. 하지만 여전히 사회적으로 버스 공급이 부족하다는 불만이 쇄도하자 결국 국토교통부는 “9월 개강으로 인해 출퇴근 시간대의 이동수요가 5천여 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해 수도권 광역버스의 입석을 탄력적으로 허용한다”고 밝혔다.

입석이 가능해졌으나 배차간격 단축과 증차는 계속 유지될 예정이다. 대원고속 모현 사업소 측은 “입석금지에 대한 대책으로 마련한 1500-2와 1150의 증차와 배차간격 감소는 그대로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박진현(경상·경제 12)양은 “입석이 언제까지 가능할지 몰라 불안하다”며 “광역버스를 타고 통학하는 학생들을 위한 새로운 정책이 만들어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다정 기자 88daisy@hufs.ac.kr

아쉬운 안녕, 2013년도 후기 학위수여식



▲염운정(인문·철학 09), 김혜리(인문·철학 09) 양이 꽃다발을 한아름 안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서학위수여식을 맞아 졸업생들이 서울배움터 오버마일을 가득 메웠다.

8월 22일 서울배움터 오버마일과 글로벌배움터 백년관 콘퍼런스홀에서 양 배움터 학생들의 2013 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이 개최됐다. 학사 1318명, 석사 322명, 박사 47명으로 총 1687명의 졸업생들이 학위수여의 기쁨을 만끽했다. 졸업식장에는 졸업생의 가족, 친구, 선후배 등이 함께해 자리를 빛냈다.

행사는 학사보고, 김인철 총장의 축사, 권순한 총동문화장의 축사, 학위수여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김인철 총장은 “높은 이상을 갖고 도전하는 정신을 잃지 말 것”과 끊임없이 공부해 미래를 선도하는 창의적인 사람이 될 것”을 당부했다. 또 권순

한 총동문화장은 “졸업생들의 학위취득을 축하하며, 여러분의 앞날에 무한한 발전과 행운이 함께하기를 기원한다”고 전했다.

염운정(인문·철학 09), 김혜리(인문·철학 09) 양은 입을 모아 “막상 학교를 떠나려니 시원스럽지만 마음”이라며 아쉬움을 전했다. 또 박은영(국제지역·러시아 10)양은 “졸업 후 전공을 살려 취직할 계획”이고, “외대인이라는 것이 자랑스럽다”며 자부심을 드러냈다.

유다송 기자 89baquibullee@hufs.ac.kr

사령

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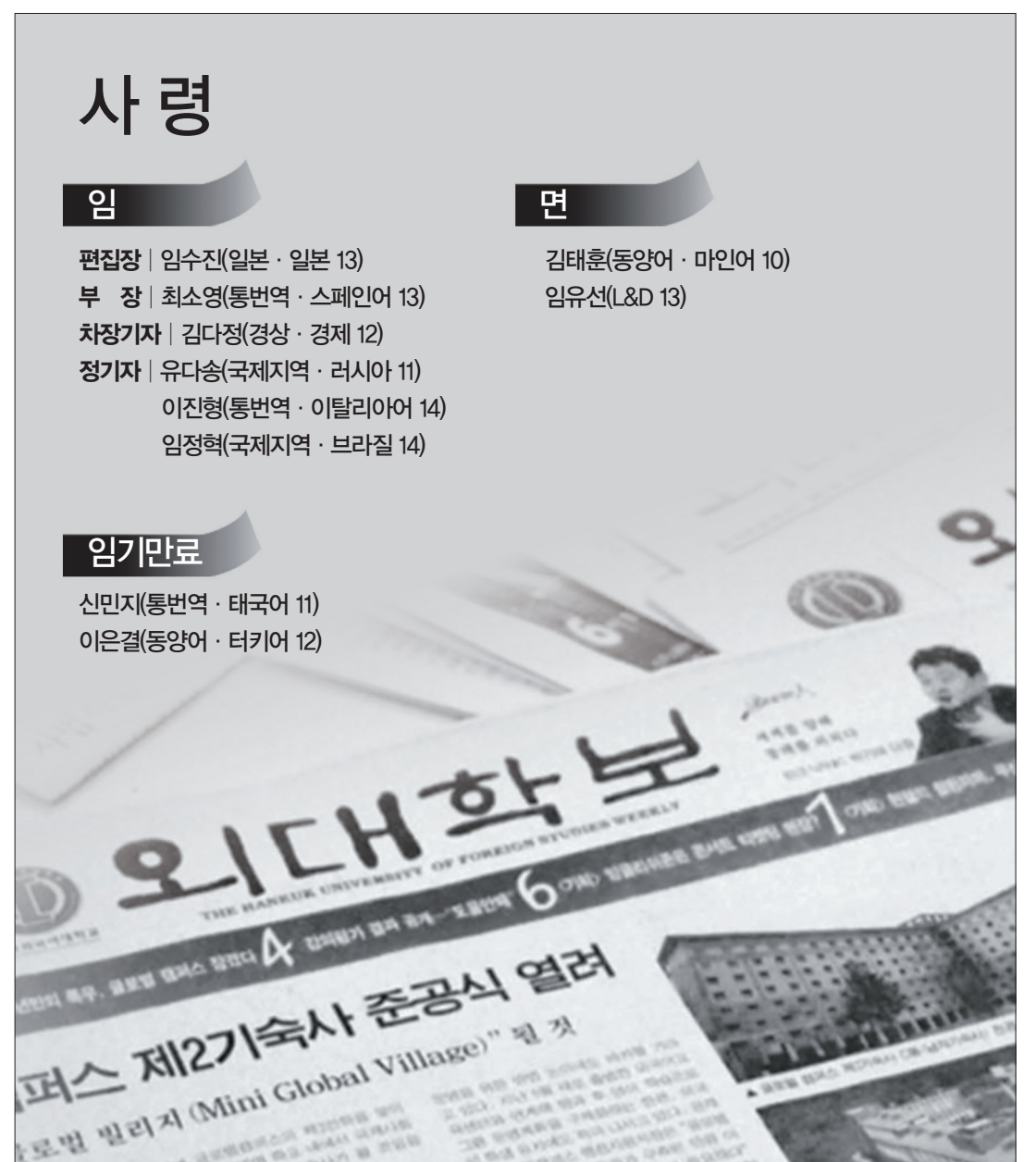
편집장 | 임수진(일본·일본 13)
부 장 | 최소영(통번역·스페인어 13)
차장기자 | 김다정(경상·경제 12)
정기자 | 유다송(국제지역·러시아 11)
이진형(통번역·이탈리아어 14)
임정혁(국제지역·브라질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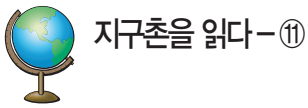
임기만료

신민지(통번역·태국어 11)
이은결(동양어·터키어 12)

면

김태훈(동양어·마인어 10)
임유선(L&D 13)





퍼거슨 사태를 통해 미국을 보다



이현승
동선대학교
영어통번역학부 교수

최근 미국의 퍼거슨시에서 일어난 사태는 미국 사회의 단면을 그대로 노출시켰다. 18세의 흑인 청년 마이클 브라운이 이차선 도로를 횡단하던 중 백인 경찰의 심문에 항의하다가 경찰관에게 머리를 포함해 전신에 여섯 발의 총격을 당해 즉사한 사건이다. 이후 2주 이상 폭동이 지속돼 군대가 출동해 치안을 바로잡았다.

이러한 종류의 사건은 미국인들에게 익숙하다. 최근 뉴욕시에서 백인 경찰이 사소한 절도죄를 저지른 흑인 청년의 목을 눌러 질식사시켜 흑인의 항의 데모가 잇따랐다. 2년 전에 플로리다에서는 집 앞 가게에서 음료수를 사오던 흑인 소년을 중남미 이민자 출신의 백인 자경단원이 총으로 쏘 죽였다. 전원 백인으로 구성된 배심원에 의해 백인 자경단원은 무죄로 방면되자 미국 전역에서 흑인 폭동이 일어났으며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사태의 진정을 호소했다. 1994년 로스앤젤레스 한인 타운을 쑥대밭으로 만든 폭동 또한 백인 경찰들이 흑인 운전자를 집단으로 구타하고 전원 백인으로 구성된 배심원이 이들을 무죄로 처리하면서 발생했다.

이러한 사건의 원인은 미국의 고질적인 인종차별이다. 퍼거슨시는 과거부터 인종차별이 노골적으로 펼쳐지던 곳이다. 주민의 60%가 흑인인 인구 2만명의 소도시는 시장부터 말단 경찰에 이르기까지 권력을 가진 자리는 대부분 백인이 차지하고 있었다. 지방자치와 민주주의의 나라인 미국에서 어떻게 이런 상황이 가능할까? 다수의 가난한 흑인이 정치와 경제에서 배제돼 있기에 가능한 일이다.

미국은 가난한 흑인이 투표하기 어렵고 돈에 따라 선거가 좌우되도록 판이 짜여 있다. 미국은 선거일 이전에 지역선거사무소에 미리 가서 유권자 등록을 하도록 돼 있는데, 먹고 사는데 허덕이는 흑인들이 선거에 투표하기 위해 미리 유권자 등록을 하기는 어렵다.

선거일이 휴일이 아닌 점도 가난한 흑인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하다. 많은 저임금 직장에서는 투표를 위해 근무시간을 빼 먹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시간제로 임금을 받는 근로자에게 투표하러 가는 것은 소득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투표소는 거주지 가까이 있지 않아 자동차가 없는 가난한 사람은 접근하기 어려우며, 가난한 사람이 사는 지역에는 투표소를 적게 뒀 투표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린다. 가난한 흑인이 많이 사는 퍼거슨 시에서 한 순진한 흑인 청년이 왜 백인 경찰관에 의해 비참하게 살해당했는가 하는 의문은 흑인이 권력으로부터 체계적으로 배제되는 상황을 이해할 때 풀린다.

미국은 인종주의 사회다. 인종주의란 백인이 다른 인종을 선천적으로 열악하다고 생각하며 차별하는 것을 말한다. 백인이 유색인을 차별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돼 있지만 유색인들은 일상에서 크고 작은 차별을 경험한다. 백인은 흑인의 옆자리에 앉으려 하지 않으며, 상점에서 흑인은 감시의 대상이 된다. 은행에서는 흑인에게 좀처럼 돈을 빌려주려 하지 않는다. 교통경찰은 백인의 차량보다 흑인이 운전하는 차량을 자주 잡으며 흑인의 차량을 잡으면 교통 업무와 전혀 무관하게 차를 살살이 수색한다. 길거리에서 흑인은 백인보다 경찰의 불심 검문을 더 자주 받으며, 유사한 위법 사례에 대해 판사는 흑인 피고에게 더 높은 형량을 부과한다. 흑인이 형무소 전체 수감자의 3분의 1이 넘는 이유가 이해된다. 일전에 하버드 대학의 한 흑인 교수는 자신의 집안에 열쇠를 두고 나와 힘으로 문을 열려고 하는 데 지나치던 경찰이 그를 잡아가 유치장에 가둬 하루 밤을 지새운 어처구니없는 일을 당하기도 했다. 사정이 이러니 흑인 어머니는 아이에게 밖에서 손에 무엇을 쥔 채로 뛰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친다. 지나가던 경찰에 잡혀가거나 심지어 총으로 쏘 죽임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노예제가 폐지된 지 150년이 흘렀고, 1960년대에 민권운동을 통해 인종차별이 법적으로 금지됐음에도 인종 편견과 차별이 여전히 심한 이유는 무엇일까? 백인과 유색인 간에 법적인 평등이 이뤄졌다고 해도, 오랜 세월 동안 쌓여진 경제적 격차와 정치권력의 차이가

단시일 내에 해소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현재 흑인은 백인의 소득보다 60% 수준만 받고 있으며 재산의 격차는 훨씬 심하다. 삶의 기회도 차이가 크다. 교육 수준이나 직업은 물론, 평균 수명, 거주 지역, 친구와 가족 관계에 이르기까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인종 간 차이는 뚜렷하다.

시간이 지나면 인종 간 격차는 조금씩 줄어들고 그에 따라 편견이나 차별도 서서히 사라지게 될까? 민권운동 이래 지난 반세기 동안의 경험은 이러한 낙관적인 전망을 무색케 한다. 민주당이 집권한 1970년대까지 흑인의 지위는 꾸준히 상승했으나 공화당이 집권한 1980년대 이래 흑인의 지위는 계속 정체하고 있다. 인종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은 백인이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인데, 백인을 절대적인 지지기반으로 하는 공화당은 백인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모든 조치에 반대한다. 공화당과 민주당의 갈등이 첨예해진 1990년대 이래 인종 평등을 높이는 기존의 제도들은 모두 무력화됐다.

미국은 흑인과 백인의 사는 곳이 엄격히 분리돼 있다. 사는 곳이 다르면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가 다르며, 서로 만나는 사람이 다르고, 생각하는 방식과 관심을 두는 사안이 달라진다. 서로 간 접촉이 드물어지면 사람들의 생각과 일상에서 '그들'과 '우리'의 구분이 명확해진다. '그들'은 '우리'와 다르다는 생각은 쉽게 '그들'은 '우리'보다 열등하며 따라서 다르게 대하는 것은 당연하게 여겨진다. 우리가 내는 세금을 그들을 위해서 써서는 안 되며, 우리가 뽑은 정치인은 그들에게 봉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백인과 흑인은 퍼거슨 사태를 보는 입장에서 크게 차이를 보인다. 백인들 중에는 백인 경찰관의 조치가 정당했다고 보는 사람이 많으며, 이 사건에서 인종문제가 과도하게 부각됐다고 생각하는 백인들이 많다. 반면 다수의 흑인은 경찰의 조치가 부당하며 이 사건은 인종문제의 핵심에 잇닿아 있다고 생각한다. 한 나라 사람이면서 백인과 흑인은 같은 사건에 대해 다르게 생각하는 것이다. 미국의 인종문제의 해결이 까마득하다는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외대인이 만난 세계

러시아를 통해 바라본 나 그리고 세상



▲러시아 전승기념일에 참여하여 러시아 역사에 대해 생각해보고 그들의 마음을 이해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지난 해 2월, 러시아로 가는 비행기에 올랐다. 새로운 곳에서의 시작은 설렘 반 두려움 반이었다. 러시아 생활은 지금까지 살아온 것과 전혀 다른 새로운 환경 속에서 내 자신에 대해 더 탐구하고 알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됐다.

러시아에서 수업을 들으며 다양한 국적의 친구들을 만났다. 또 유럽여행을 떠나 호텔에서 머무는 동안에도 여러 나라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다른 문화의 친구들과 대화하며 나에게 익숙한 관습, 행동들이 다른 국가 사람과는 달라 서로 이해하지 못했던 일이 많았다. 그러나 다양한 생각과 문화를 꾸준히 접하면서 내 생각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님을 인정하고, '다름'을 인정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지게 됐다.

또한 지금까지 한 번도 부모님과 떨어져 살아보지 못한 나에게 외국 생활은 자립심과 독립심을 키워줬다. 집안일은 거의 해본 적이 없었지만 러시아에선 스스로 빨래와 방청소를 하고 음식을 만들어 먹어야 했다. 쉽게만 생각했던 일들이 힘들다는 것을 알게 됐고, 이런 일들을 도맡아 하였던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더불어 가족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커졌고, 나를 지원해주시는 부모님께 진심으로 감사하게 됐다.

외국 생활을 하며 '나'라는 존재에 대해 좀 더 알아갈 수도 있었다. 유학 전에는 바쁜 학교생활에 치여 내가 무엇을, 왜 하고 있는지 생각할 겨를 없이 주어진 임무에 충실하기만 했다. 그 결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커졌고, 자아정체성의 혼란을 겪기도 했다. 러시아에 있는 동안 나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대화하면서 내가 무엇을 원하고, 하고 싶은지에 대해 조금이나마 해답을 얻을 수 있었다. 그때의 많은 생각들이 지금 학교 생활의 방향을 잘 잡고 있는 나를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러시아에서의 생활은 생각의 폭을 넓혀 나를 바꾸고 잘 알게 했다.

외국 생활의 기회는 쉽게 주어지지 않는다. 어렵게 얻은 기회는 타국에서 생활하며 직접 체득하는 문화와 사회, 살아가는 과정과 경험이 생각을 넓혀주고, 좀 더 나은 나를 만들어 줬다. 2013년 그때의 파란만장했던 외국 생활은 한여름 밤의 꿈 같이 설레는 기억들이다. 일상에 지칠 때 잠시나마 그때를 떠올리면 다시 힘이 난다. 앞으로도 그때의 소중한 기억들을 잊지 않으며 열심히 살아갈 것이라 다짐한다.

허지은(국제지역 · 러시아 11)



한국예술고등학교 설립자, 이사장
행정학 박사 공준표

www.koreaartschool.com

한국예술고등학교

음악과

- 클래식
- 보컬
- 실용기악
- 실용작곡
- 실용댄스

미술과

- 디자인
- 애니메이션
- 패션디자인
- 사고의전환
- 기초드로잉
- 회화

연극영화과

- 연기
- 뮤지컬(춤·노래)
- 연출
- 영화연출
- 촬영
- 방송연기

본교의 특징

- 1.전공별 특성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실기 위주의 교육을 실시합니다.
- 2.교사와 학생이 함께 참여 연구하는 문제 풀이식 수업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 3.학업성취도 향상 및 실기 능력 향상.

서울특별시 성동구 무학로 6길 41 (홍익동) / 교무실 : Tel. 02.2296-1946, 02.2281-6334, 02.2295-4140 / 행정실: Tel. 02.2296-3487, Fax.02.2299-2405

백년대계의 초석을 놓을 백년관



▲ 컨퍼런스홀 겸 체육관
2020㎡(611평) 규모의 2000명가량 수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운동공간이 부족했던 글로벌배움터 학생들을 위해 평상시에는 체육관으로 개방하고 때에 따라서 콘퍼런스홀로 이용 될 예정이다.



▲ 국제세미나실
모의UN이나 국제심포지엄과 같은 학술회의 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공간이다.



▲ 스카이라운지
백년관의 가장 윗층으로 현재는 학교 내 행사에 대어해주고 있으며, 앞으로 더 활성화할 계획이다.



▲ 운동장
90m×45m 규격의 인조잔디구장이다. 축구, 배구 등 구기운동을 할 수 있는 장소가 마련돼 있으며, 단거리달리기 트랙이 설치돼 있어 글로벌배움터 내의 운동시설 부족 문제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다.

“하루빨리 백년관이 완공돼 학생들에게 더 좋은 강의 환경을 제공 했으면 좋겠다” 2010년 10월에 있던 백년관 기공식을 두고 박창수 중국어통번역학과 교수가 했던 말이다. 그로부터 2년 남짓이 지난 2014년 6월 12일 백년관 준공식이 있었다. 그리고 이번 학기 시작과 함께 모두가 꿈에 그리던 백년관이 문을 연다.

백년관 건설 허가 단계부터 참여했던 강기훈 글로벌배움터 행정지원처장은 “건축 허가가 떨어지기까지 많은 난관이 있었다”며 지난날을 회상했다. 특히 문제가 된 점은 백년관 부지의 소유권이었다. 전 문가와 용인시 등에 자문을 구하고 소유자를 긴 시간 설득해 해결했다. 강기훈 처장은 백년관 건설 중 가장 신경 쓴 부분에 대해 ‘자연친화적 인테리어’라고 밝혔다. 그 노력의 한 예시는 고벽돌이다. 일반 벽돌이 아닌 고벽돌을 사용해 자연스레 공기 중에 습도 조절이 되도록 했다. 또 고벽돌의 은은한 색채는 백년관이 주변 경관에 더욱 어울리도록 한다.

백년관 설계의 가장 큰 특징은 짧은 동선이다. 글로벌배움터 기획건설팀은 “여러가지 동선이 존재해 처음엔 복잡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고 익숙해지면 각 층 간에 연결된 계단들을 통해 힘들지 않게 이동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백년관 내부에는 학업 공간이 부족하다는 학생들의 불만을 수렴해 50여 개의 강의실을 만들어 총 2500명가량의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게 됐다. 이와 더불어 노트북열람실, 미디어감상실, 스터디룸 등을 만들었다. 이에 대해 기획건설팀은 “학생들이 공부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며 “글로벌배움터에서 학습할 공간이 부족하다는 불만이 현저히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를 표했다.

또한 백년관에는 잔디구장과 컨퍼런스홀 겸 체육관, 국제세미나실 등 학업 외에도 학생자치 활동이 가능한 공간이 마련된다. 백년관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마친 후에 기획건설팀의 안내에 따라 백년관 내 특별한 공간들을 돌아볼 기회를 가졌다.

- 11층 스카이라운지
- 10층 총장실, 부총장실, 회의실
- 7~9층 교수연구실 및 연구시설
- 4~6층 초소·소·일반·중형 강의실, 감사연구실 및 휴게실, 대학원 세미나실, 대학원 강의실
- 2~3층 소·중·대형강의실, UCC조정실, UCC스튜디오, 멀티미디어교육실(2), 미디어감상실(1), 행정기관사무실, 열람실(120석), 매점 등
- 1층 컨퍼런스홀 겸 체육관, 후생복지공간, 국제세미나실, 통역실, VIP대기실, 노트북열람실, 스터디룸, 조정실, 안내실, 방제실, 우편물수발실 등
- 지하1층 주차장, 창고, 기계실

강기훈 처장은 백년관에 대해 “뿌듯하고 보람을 느끼면서도 한편으론 흥분하다”며 소감을 전했다. 한편 이예슬(국제지역·그블 14)양은 “백년관에서 수업 듣기를 기다렸다”고 기대를 나타냈다. 권혜성(국제지역·러시아 14)양은 “백년관 내에선 금연구역을 잘 지켜줬으면 좋겠다”며 다른 건물 내에서 지켜지지 않던 부분을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많은 학생들이 백년관과 다른 건물 사이 이동이 어려울까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이에 대해 배준형 글로벌배움터 총괄지원팀 직원은 “교내순환버스를 기존의 작은 차량 2대와 큰 차량 2대에서 큰 차량 4대로 바꿨다”며 “이번 학기부터 교내순환버스의 수용인원을 늘려 문제를 해결하려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임정혁 기자 89ginpaldduk@hufs.ac.kr



▲ 스터디룸
노트북검색실이 개인 학습공간이라면 스터디룸은 단체학습을 위한 공간이다. 스터디룸에서는 발표수업이나 조별과제를 준비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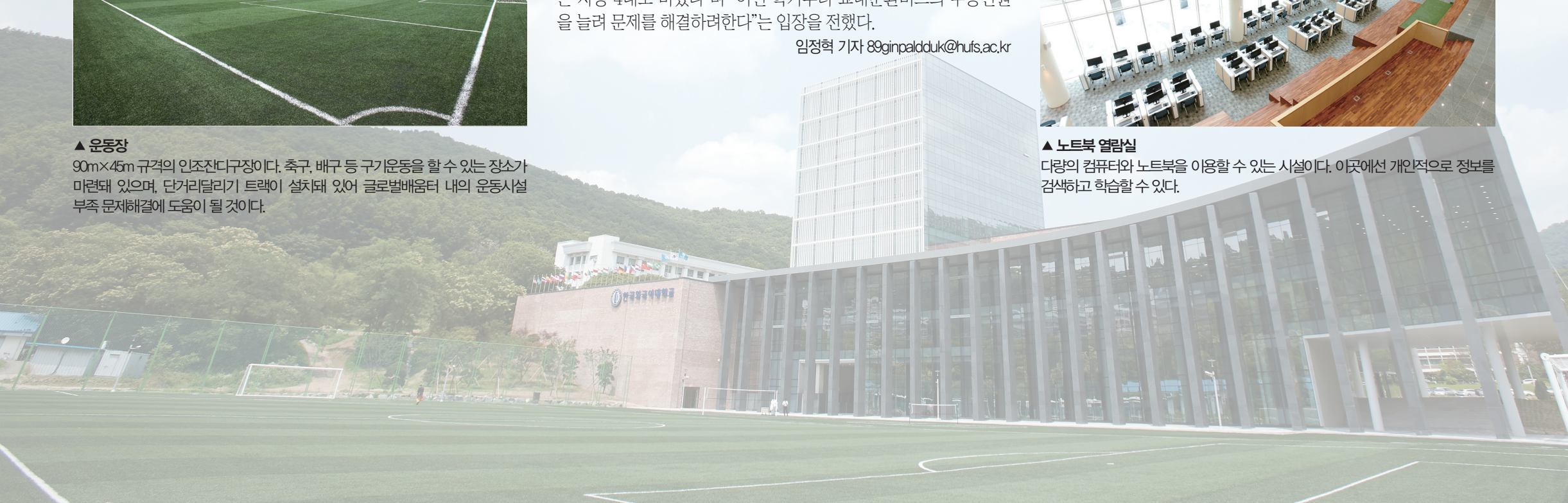
▲ 미디어교육실
미디어 자료를 열람하고 감상할 수 있는 곳이다.



▲ 열람실
120석의 열람석이 배치된 공간으로 학업 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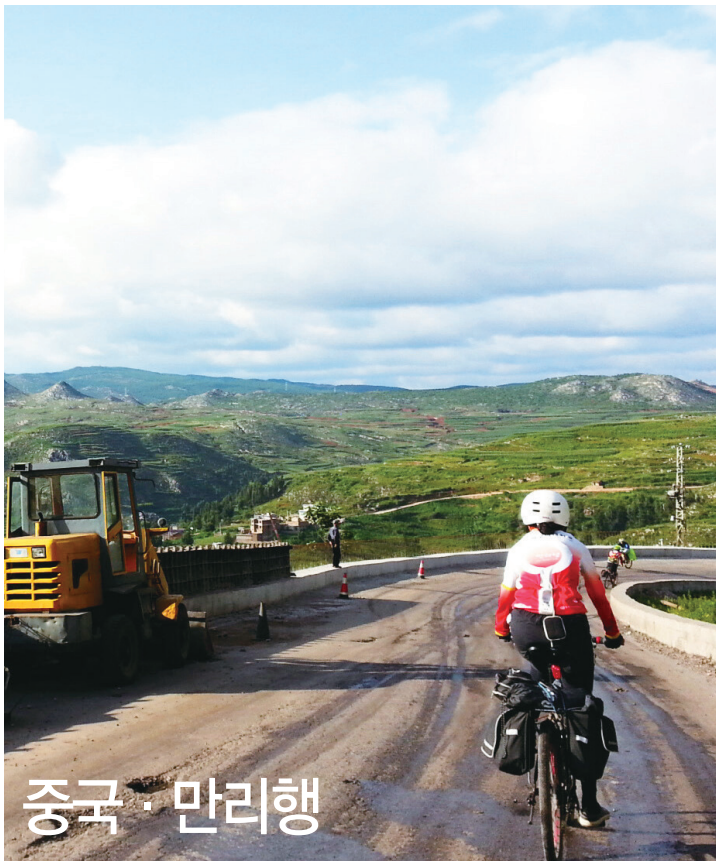
▲ 노트북 열람실
다량의 컴퓨터와 노트북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다. 이곳에선 개인적으로 정보를 검색하고 학습할 수 있다.



내가 바로 여행 밀담 남녀!

중세 철학자 아우구스티누스는 '여행하지 않는 사람에게 이 세상은 한 페이지만 읽은 책과 같다'고 말했다. 삶을 책 한 권에 비교했을 때 지금 우리는 어떤 장을 읽고 있을까. 여기 새로운 책장을 넘기고 있는 우리학교 학생들이 있다. 본지에서는 그들의 책을 들여다보기로 했다. 이들의 이야기를 읽고 당신의 다음 장을 계획해보는 것은 어떨까.

김다정 기자 88daisy@hufs.ac.kr



중국 · 만리행

〈드넓은 중국을 자전거로〉

기말고사가 끝나자마자 강지혜(통번역 · 스페인어 13) 양은 설렘 가득한 마음으로 학생회관 옆에 세워둔 자전거에 올랐다. 강 양은 이번 방학에 10명의 학생들과 함께 중국 쿤밍에서 출발해 구이양, 충칭, 청두를 거쳐 시안까지 총 2316km를 오직 자전거를 이용해 완주했다. 중국에서 자전거를 타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 여행 시작 전 컸던 기대감은 그녀를 더욱 실망시켰다. “항상 산을 오르 내리는 건 물론이고 비포장 도로를 아픈 엉덩이를 참아가며 달렸다”며 “가끔은 트럭이 길을 막고있거나 물이 고여 자전거가 지나갈 수 없었고 도로가 갑자기 사라질 때도 있었다”고 했다.

날씨 또한 만만치 않았다. 광저우의 뜨거운 태양 아래서 땀이 비오듯 쏟아졌다. 그녀를 더 힘들게 한 것은 바로 지나가는 차들의 경적 소리였다. 그녀는 “차가 우리를 보기만 하면 시비를 걸었다. 땀땀대는 소리에 착했던 팀원들마저 욕을 해가며 성을 냈다”고 회상했다.

하지만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도 있듯, 힘든 일이 있으면 그녀를 웃게 하는 일들도 많았다. 강 양은 “죽을만큼 주행한 뒤면 시원한 바람과 맑은 하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회상했다. ‘씨파이쥘 이콰이~(수박이 한군데 일원~)’라 외치는 트럭을 붙잡아 수박을 사서 팀원들과 웅기종기 앉아 함께 먹은 것이 기억에 남는다고 한다. 복숭아, 망고, 망고스틴, 청포도, 하미과 등의 중국 과일들은 가격도 착하고 맛도 착했다. 가게 앞에 쉬고 있을 때면 물건 하나 사지 않았는데도 의자를 꺼내주며 여기 앉으라던 가게 아주머니부터, 길을 잘못 들어왔다면 맞는 길을 알려주던 경찰들, 우연히 세 번이나 마주친 4형제 자전거 팀까지 그녀에게 잊지 못할 고마운 인연들을 많이 만났다.

중국은 출발지에서 타는 기차도 8시간이 연착되는 이상한 나라다. 그 덕분에 그녀는 참고 참는 인내의 능력을 얻었다. 또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 웃으며 즐길 수 있는 능력도 얻었다.

그녀는 51일간의 여행 동안 매일 어떤 일이 펼쳐질지 부푼 마음으로 상쾌한 아침을 맞이했고, 무슨 일이 일어나도 하루를 잘 마쳤다는 것에 감사하며 잠들었다. 탈도 많았지만 여행에서 돌아온 지금 생각하면 모든 순간들이 잊지 못할 추억이다. 그녀는 “혼자가 아니라 10명이 함께 했기에 뜻 깊었던 여행이었다”고 전했다.



▲ 만리행 도중 함께 떠난 팀원과 수박을 먹는 모습.



▲ 만리행은 끝이 안보이는 완주였다.



네팔 · 안나푸르나

〈최고 높이에 도전하다〉

안나푸르나 베이스캠프(이하 ABC)는 비산악인이 갈 수 있는 최고 높이인 4130m에 있다. 지난 해 여름 조상철(경상 · 경제 09) 군은 가이드와 포터(트레킹에 필요한 짐을 지고 산을 오르는 일을 하는 사람)도 없이 ABC에 도전했다.

ABC에 올라가는 길은 두 가지로 있는데 그는 그 중 풍경이 아름다운 코스를 선택했다. 나야플에서 트레킹을 시작해 약 800m 정도를 올라 첫 목표지점인 반탄티 마을에 도착했다. 반탄티의 롯지(산장)에 도착해 “너무 힘들어 씻지도 못한 채 꼼짝없이 누워있던 기억이 난다”며 웃었다.

다음 날 2750m의 고라파니를 목표 지점으로 하고 또다시 걷기 시작했다. 첫날과 달리 등산과 계곡을 번갈아 오르내리는 길이어서 조금 수월했다. 이를 정도 산에 있다 보니 점차 트레킹이 수월해졌고 주변 경치를 감상하는 여유도 생겼다.

그러나 점차 고도가 높아지면서 동행하던 사람들은 고산병으로 고생했다. 개인차가 있지만 3000m를 기준으로 심해지는 병이다. 다행히 조 군은 고산병의 증상은 보이지 않았다. 3400m 테우탈리에 도착했지만 좋지 않은 날씨로 더 걸을 수 없었다. 원래 도착 목표였던 3700m 마차푸차레 베이스캠프(이하 MBC)로 갈 수가 없어 테우탈리의 롯지에 짐을 풀었다. 각 마을마다 있는 롯지에서는 그는 세계 여러 나라의 등산객들을 만날 수 있었다. 짐을 풀 그는 롯지에서 한국인 아저씨와 20대 커플, 19살 영국 남학생과 친해졌다.

엄청난 폭설에 날씨가 좋아지길 기원하며 테우탈리 롯지에서 하루를 지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보니 눈은 허리까지 쌓여 있었다. 자칫 잘못하면 내려가는 길마저 막혀 꼼짝없이 갇히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아저씨가 가이드와 포터에게 팁을 더 줄테니 눈을 뚫고 더 올라가자고 제안해 눈을 치우며 MBC를 향해 올랐다. 그 때 가이드와 포터들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다. 눈사태였다. 옆드려서 머리를 보호하며 눈사태가 무사히 지나가길 기도했고 다행히 다치지 않았다. 그는 더 이상의 트레킹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ABC등산은 다음을 기약했다. 비록 목표였던 ABC등산에는 실패했지만 조 군은 “대자연의 웅장함과 무서움, 할 수 있다는 자신감 등 많은 것을 배운 트레킹이었다”고 전했다.



▲ 주변경치를 감상하며 트레킹 하는 모습



▲ 안나푸르나는 변덕스러운 날씨로 트레킹이 힘들 때가 많았다.



파키스탄 · 훈자마을

〈배낭여행의 3대 블랙홀〉

배낭여행객에게는 3대 블랙홀이 있다. 한 번 들어가면 나오고 싶지 않은 곳이라고 해서 블랙홀이라는 것이다. 라오스 방비엠크, 이집트 다함, 그리고 파키스탄 훈자마을이다. 세계여행을 하고 있는 나찰술(상경 · 경제 09) 군은 그 중 한 곳인 훈자마을에 다녀왔다.

네팔과 인도를 거쳐 파키스탄에 도착했다. 그는 “파키스탄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슬람 국가, 테러국가로 인식하고 있지만 일부 위험지역을 제외하면 파키스탄도 그리 걱정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했다.

파키스탄에 들어가는 길은 크게 2가지가 있다. 육로와 항공편이다. 나 군은 인도에서 육로로 국경을 넘어 가는 쪽을 택했다. 인도와 파키스탄은 종교대립으로 인해 분리된 나라로 국경을 넘을 때도 걸어서 건너 갈 수가 없다. 인도 국경에서 출국철차를 밟고, 버스를 타서 파키스탄 출입국사무소로 이동하게 된다. 그는 인도에서 묵었던 숙소까지 꼬치꼬치 캐묻고 확인 받았다.

파키스탄의 버스는 우리의 상상과는 다르다. 버스에서는 테러위험 때문에 비디오로 얼굴을 녹화한다. 산사태와 도로사정, 각종 검문으로 인해 총 36시간의 버스여행 끝에 그는 그림 같은 마을 훈자(Hunza)에 도착했다. 훈자마을 안에서도 카리마바드(Karimabad)라는 곳으로 갔다. 여행자들이 오고 싶어도 길이 어려워 손때 묻지 않은 마을이다.

훈자마을 북쪽에는 파수라는 지역이 있다. 나 군은 이 곳을 “빙하와 산들, 그리고 밤에 쏟아지는 무수한 별들이 명관”이라고 설명했다. 2010년 대규모 산사태로 이 곳으로 가는 길목은 호수가 됐다. 마을이 있던 곳이라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고 집들이 수몰됐지만 그 자리는 아름다운 에메랄드 빛의 호수가 된 것이다.

나 군은 다음 날 3270m 울타르메도우를 오르기로 했다. 힘들지는 않지만 길이 없는 곳이라 현지인들과 같이 가라는 말에 자주 가는 식당 주인 아스란의 15살 꼬마를 데려갔다. 보통 왕복 8시간 걸리는 코스를 5시간 만에 다녀왔다. 15살 꼬마는 “여기가 학교에서 자주 소풍 오는 곳이라며 자기 친구들이랑 가면 이 속도로 안 간다”는 무서운 말을 했다.

파키스탄에서의 아쉬움을 뒤로 하고 그는 남은 세계여행을 위해 버스를 타고 다시 24시간을 달려 공항으로 향했다.



▲ 산사태로 인해 호수가 된 파수로 가는 길목.



▲ 훈자 마을은 어디를 찍어도 그림이 된다.

내가 제일 잘 나가, 대세는 비지상파 예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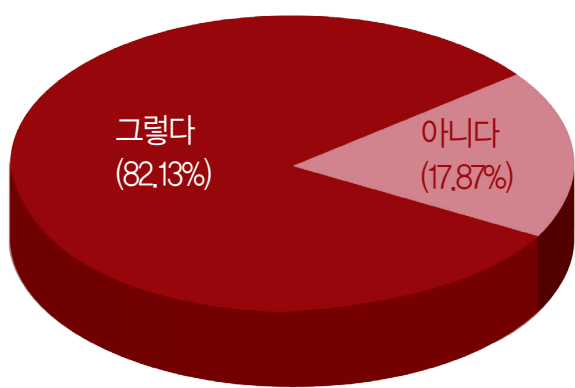
최근 인기 예능 프로그램들을 보면 지상파가 비지상파 방송보다 우세하다고 여겼던 시절은 이제 지나간 듯 하다. 비지상파가 지상파보다 시청률이 낮을 것이라는 예상은 이제 옛 말이 됐다. 요즘 비지상파 예능 프로그램들은 놀라울 만큼 약진을 거듭하며 자신들도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뚝뚝하게 확인시켜주고 있다. 과거의 예능계가 지상파 채널 간의 시청률 싸움이었다면, 오늘날 예능계는 지상파와 비지상파가 동등한 대결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비지상파 채널들은 화제성 높은 예능 프로그램들을 연이어 선보이며 시청자들로부터 많은 인기를 얻고 있다.

◆비지상파 시청률 성적은 A+

8월 24일 방송된 JTBC '히든싱어3' 이선희 편은 시청률 7%(닐슨 코리아 조사, 수도권 유료가구 광고 제외 기준)를 돌파하며 저력을 과시했다. 동시간대 방송된 MBC '세바퀴(6.7%), SBS '그것이 알고 싶다'(6.3%) 보다도 높은 수치로, 비지상파는 물론 지상파 3사까지 모두 제압했다. 같은 달 25일 방송된 '황금알'은 시청률 5.792%(전국 유료방송가입 가구기준)를 기록, 200여 케이블 및 종합편성채널에서 방송된 프로그램 가운데 당당히 1위를 차지했다. 분당 최고 시청률 역시 7.522%까지 치솟으며 선전했다. 이것은 KBS2 '안녕하세요'(5.378%)보다 약 0.4% 포인트 앞선 수치로 지상파 포함 동시간대 2위에 올랐다. 또 동시간대 전체 1위를 차지한 SBS '힐링캠프'와의 격차도 단 0.3%에 불과했다.

◆비지상파 예능에 대해 우리학교 학생들은 어떤 생각일까?

최근 비지상파 예능이 지상파 예능보다 대세라고 생각하십니까?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우리학교 학생들에게 비지상파 예능에 대한 인식을 주제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최근 비지상파 예능이 지상파 예능보다 대세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666명중 82.13%에 해당하는 547명의 학생들이 "그렇다"고 답했다. 비지상파 예능이 대세라면 그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77.1%의 압도적인 수치로 '독특한 소재 사용'이 1위로 뽑혔다. 지상파 예능에 출연하지 않았던 새로운 출연자 발굴, 참신한 캐릭터 등장이라는 이유가 각각 9.12%, 5.7%로 뒤를 이었다. 이어 좋아하는 예능 프로그램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비정상회담, 마녀사냥, 썰전, 꽃보

다 청춘 등이 주를 이뤘다.

서승준(통번역·영어 06)군은 "썰전'은 지상파였다면 여과 없이 방송에 내보내기 힘들었을 연예인들의 정치 비판을 들을 수 있어 색다르다"고 말했다. 또 "뜰에 박힌 느낌에 비해 자유로운 비지상파 예능은 보는 사람



▲ 최근 인기 있는 비지상파 예능의 포스터들

을 빠져들게 만든다"며, 지상파 예능은 매 회 비슷한 형식 때문에 단조롭고 지루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임채완(국제지역·러시아 11)군은 "텔레비전을 보는 것도 일종의 정보를 얻는 것인데, 요즘 지상파는 세분화된 주제로 알고 싶은 것을 꼭 짚어준다는 점에서 마음에 든다"고 말했다. 덧붙여 "지상파의 경우는 남녀노소 모두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다 보니 비지상파보다 적극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은 찾기 힘들다"며, 비지상파는 색다른 소재로 정보, 재미를 모두 충족시킨다고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기존 예능과 차별화

'비정상회담'이라는 예능 프로그램은 그동안 예능의 대세로 자리 잡고 있던 '리얼 버라이어티' 형식의 프로그램과 거리가 멀다. 비정상회담의 인기 비결은 그저 재미 때문만이 아니다. 외국인들이 나오니 과거 KBS 2TV '미녀들의 수다'와 같은 콘셉트일 것이란 예상과는 달리, 이 프로그램은 외국인 패널들의 가치관 차이를 부각하며 차별화를 보였다. 각자의 개성으로 토크를 풍진 외국인 패널들은 부모로부터의 독립, 결혼 전 동거, 현실과 꿈의 괴리, 성교육의 정규화 등 쉽지 않은 토론 주제를 색다른 시각으로 풀어내고 있다. 우리나라 게스트의 고민을 두고 11개국 외국인 패널들의 다양하고 진지한 의견을 나눈다는 점에서 '미녀들의 수다'보다 한 단계 발전했다고 볼 수 있다.

'히든싱어' 역시 MBC '나는 가수다', KBS2 '불후의 명곡'과 마찬가지로 노래를 소재로 삼은 예능이다. 하지만 가수 한 명과 모창 능력이 뛰어난 일반인들의 등장으로 기존 예능과 확실한 차별점을 뒀다.

◆새로운 스타 발굴

지상파 예능이 국민 MC라 불리는 유재석, 강호동 같은 기존 스타들을 섭외하는 반면, 비지상파 예능은 명확한 콘셉트에 맞춰 신선한 얼굴을 섭외해 새로운 스타를 만들고 있다. 발굴된 새 스타들은 비지상파 예능의 인기몰이에 불을 붙였다.

예를 들어 '마녀사냥'이라는 예능 프로그램은 영화 평론가 허지웅, 칼럼니스트 박정은 등의 출연진을 유명 인사로 만드는 데에 성공했다. 솔직한 입담을 과시하는 그들은 지상파 방송에서는 쉽게 할 수 없었던 연애와 성에 대한 이야기를 일상적으로 풀어내며 마녀사냥이 20~30대 젊은 층의 많은 지지를 받게 했다. 또한 이 프로그램은 '그린라이트', '낮저녁' 등 다양한 유행어를 만들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상승세 비결은 무엇?

심영섭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비지상파 예능이 인기를 얻고 있는 이유에 대해 크게 세 가지를 들었다. 우선, 비지상파의 경우 지상파와 달리 소재개발과 표현이 더 자유롭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규정은 지상파와 비지상파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비지상파에 대해서는 심의를 까다롭게 하지 않기 때문에 표현이나 구성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둘째로는 실험적인 시도를 할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역사가 오래된 지상파 방송은 경영진과 제작진이 기존의 전통을 고수하려는 보수적인 경향을 띤다. 또한 수익성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곧바로 프로그램으로 연결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비지상파에서는 짧은 제작진이 이러한 실험을 할 수 있어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다. 셋째로 제작비용을 들 수 있다. 비지상파의 경우 제작비용이 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많은 비용이 투자되는 교양이나 드라마보다는 예능 제작에 치우칠 수 밖에 없어 수적으로 인기몰이에 유리하다. 이어 심교수는 "비지상파 방송 안에서도 제작비나 채널의 성격에 따라 예능 제작 상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예능을 주도하는 채널들도 생겨난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비지상파 예능의 약진에는 세대별 계층별로 호소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된다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 그러나 오락프로그램 위주로 프로그램이 공급되면서 언어파괴와 소비문화 조장, 사회적 규범의 약화현상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심교수는 이러한 부정적인 측면을 지적하며 특히 "방송이 계몽적, 교육적 기능을 상실, 현실의 모든 문제를 망각하고 도파하도록 만드는 수단으로 전락하는 측면이 있을 수 있다"고 경각심을 드려냈다.

유다송 기자 89baquibullae@hufs.ac.kr

5분심포

임정혁 기자

연(음)빌리버블

유다송 기자

무엇을 좋아하셨었나요?

어느새 2학기에 첫 발을 디뎠다. 새 학기를 맞아 학보에 많은 변화가 생겼다. 그 중 하나는 '5분 심포'라는 칼럼이다. 이 코너에선 노래 한 곡을 소개하고 그 곡에서 느껴지는 소중한 감정들을 얘기하며 바쁜 삶에서 잠시나마 휴식하는 시간을 가지려 한다.

처음 소개할 곡은 가을방학이 부른 '가을방학'이라는 곡이다. 누군가는 개강한 지 며칠이나 됐다고 벌써 있지도 않은 가을방학 타령이냐고 할 수도 있다. 어쨌거나 이 곡에선 가을방학을 정말 노골적으로 찾는다. 어렸을 때 자기는 사계절 중에 가을을 가장 좋아했었는데 하필이면 가을에만 방학이 없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생떼는 한 구절의 가사로 마침표를 찍는다. "넌 어렸을 때부터 네 인생은 절대 네가 좋아하는 걸 준 적이 없다고 했지"

가을방학이 없다는 사실에서 인생에 대한 회의까지 이어지는 지극히 사색적인 곡이다. 그래서 특별히 귀 기울이지 않으면 선율 좋은 곡으로 지나칠 수 있다. 하지만 곡을 들으며 작사가와 함께 사색을 하면 꼭 작사가만이 할 수 있는 생각은 아니라는 느낌이 든다. 우리는 어렸을 때 무엇을 좋아했었나? 아직도 그 때 좋아했던 것



조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진행된 '가을방학'의 촬영 현장

을 좋아하고 있을까? 그렇지 않다면 왜 좋아하지 못하게 됐을까?

작사가는 자신이 좋아하는 걸 준 적이 없는 인생에게서 그 이유를 찾는다. 어렸을 때 우리들은 분명 좋아했던 일이 있었고 그 일 때문에 되고 싶었던 무언가가 있었다. 물론 그 꿈을 이루는 과정 중인 사람도 있겠지만 인생이 주지 않아서 즉, 여건이 허락되지 않아 포기한 사람도 있다. 마치 가을을 좋아하는데 가을방학이 없어서 단풍을 즐기지 못하는 사람들처럼.

이번 학기에는 어렸을 적에 순수하게 좋아했던 일을 기억해보자. 그리고 주변 환경이 도와주지 않더라도 행동으로 옮겨보자. 물론 그 과정엔 많은 장애물들이 놓여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정말 좋아해서 하는 것만으로 행복을 느끼게 되는 일이라면 그 장애물을 넘으려 시도할 가치가 있지 않을까. 가을을 정말 즐기고 싶다면 방학이 없는 것을 탓할 것이 아니라 주말이라도 단풍을 찾아가면 될 노릇이다. 이번 학기엔 행복을 찾아가는 학기가 됐으면 한다.

커피 전문점이 우리의 일상에 자리잡게 된 것은 꽤 최근 일이다. 한두 개씩 늘어나더니 약속 장소로, 공부 장소로 이용되며 근 10년 사이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언제부터인가 커피 전문점들은 각자의 특성화된 디저트 메뉴를 앞세워 발전하기 시작했다. 커피와 함께 먹을 수 있는 빵이나 케이크 같은 다양한 디저트를 판매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현상에 이어 이제 케이크만 따로 파는 케이크 전문점부터 마카롱, 수제 초콜릿 가게까지 생겼다. 커피 전문점의 인기를 이어받아 본격적으로 디저트 가게가 늘기 시작한 것이다. 수요는 점점 늘어 변화가 건물에 하나쯤은 입가심할 곳이 있고, 디저트 가게는 우리 생활에 입지를 단단히 굳혔다.

이번 여름엔 계절 탓인지 곳곳에 빙수 프랜차이즈가 넘쳐났다. 필자도 이번 여름 달달한 빙수 맛에 푹 빠져있었다. 예전엔 팔빙수, 과일빙수가 최대의 선택이었으나 수요가 많아져서인지 메뉴도 세분화됐다. 가을이 돼가는데도 빙수 전문점 오픈 예정이라고 붙여있는 현수막을 보면 지금은 더워서 잘 팔린다지만 겨울엔 데워 먹일 생각인가 싶을 정도로 계절 안 가리고 빙수 프랜차이즈는 성장 중이다.

빙수 값 '12000원'. 필자의 아버지는 이 가격을 보고 옛날 같았으면 밥 세 끼 해결했을 돈이라고 하신다. 디저트 값은 밥값 못지 않거나 그것보다 비싸다. 아메리카노 평균 가격은 뜨거운 것은

3135원, 차가운 것은 3445원이고,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서 조사한 빙수 가격 조사에 의하면 유명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의 빙수 가격은 평균 9341원으로 직장인 평균 점심 값 6488원의 1.5배 수준이다. 이처럼 가격이 비싼데도 사람들은 디저트 가게를 찾고 있다. 적지 않은 돈이 나가게 하지만 자리에 앉아 달콤함을 즐길 수 있는 낭만을 포기할 정도는 아닌가 보다.

몇 년 전 커피전문점이 처음 생겼을 때만 해도 디저트 가게는 새로운 문화였다. 그 당시만 해도 사람들이 어떻게 음료 한잔이 오천 원 안팎일 수 있느냐는 생각을 분명 했던 것 같다. 밥보다 비싼 커피를 마시면 '된장녀'라는 말로 비난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제 디저트에 쓰는 돈은 품위유지비라고까지 불려진다. 원하면 밥은 언제든 먹을 수 있기에, 밥값만큼의 가격이라고 디저트를 먹지 않을 이유도 없다. 비싼 디저트에 된장녀 소리 듣는 시대도 지난 것을 보면, 어쩌면 디저트 문화에 대한 인식이 변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제 사람들의 의식이 달라졌다. 후식을 먹기보다 여유를 즐기는 것이다. 후식은 단순히 음식의 의미를 넘어 자리와 시간이다. 이제 사람들이 돈을 지불하고 소중한 여유를 제공받는 재미를 찾고 있다. 이제 사람들의 생활은 돈을 주고 여유를 사는 수준까지 이르렀다. 먹고 또 먹고, 디저트 가게가 이분법처럼 늘고 있는 지금 우리는 적당히 먹고 살 만한게 아닐까.

우리학교 언어인지과학과 채희락 교수

네 머리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궁금하다면?

“언어인지과학과?”

우리학교 학생이라면 ‘언어인지과학과’라는 명칭을 한 번쯤 들어봤을 것이다. 그리고 언어를 배우는 입장 이라면 흥미를 가져볼 만하겠다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언어인지과학과에서 다루고 있는 ‘언어학’이나 ‘인지과학’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는 학생은 찾아보기 힘들다. 언어학과 인지과학, 그리고 언어인지과학이란 대체 어떤 학문일까? 채희락 교수를 통해 들어보자.

인지과학과 언어학

인지과학이란 지식이나 지능, 지각과 같이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연구하는 학문을 말한다. 다시 말해 뇌 속에서 일어나는 현상의 원리와 원칙에 대해 연구하는 것이다. 그러니 넓은 의미에서는 심리학, 뇌 과학, 철학까지도 인지과학의 한 예로 볼 수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인지과학은 이렇게 발견해낸 내용들을 응용하는 것에까지 초점을 맞춘다. 그 응용분야로 전산학이나, 그 중에서 특별히 지능적인 부분을 연구하는 인공지능 연구 등이 있다. 인지과학의 장점은 현상에 대한 보다 근원적인 연구를 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여러 분야의 학문과 융합적인 사고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인지과학이란
지식이나 지능, 지각과 같이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연구하는 학문을 말한다.
다시 말해
뇌 속에서 일어나는 현상의
원리와 원칙에 대해
연구하는 것이다.”

언어학이란 말 그대로 언어에 대해 연구하는 학문이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생각을 통해 발현되는 언어능력의 정체를 밝히는 학문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언어능력을 밝히기 위해선 두뇌에 대한 연구를 필요로 한다. 이런 관점에서 언어학은 인지과학의 한 분야가 된다.

채 교수는 이에 대한 예시로 우리나라 사람이 가진 한국어 구사 능력에 대한 연구를 들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모두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한국어 능력을 연구하기 위해선 화자의 머릿속에 있는 지식에 대한 연구가 이뤄져야한다”는 것이다. 즉, 언어학도 언어 능력을 연구하기 위해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현상과 그 원리에 대해 탐구하는 인지과학의 관점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언어학처럼 인지과학에는 많은 학문이 포함돼 있다. 그 중에 다른 학문과는 구분되는 언어학만의 특징으로 채 교수는 “다른 학문과 달리 구체적인 연구대상이 있다는 점”을 이야기한다. 예를 들

면 심리학은 심리를 밝히기 위해서 행동을 통해 우회적으로 연구해야 하는 반면에 언어학은 머릿속에 존재하는 어떤 원리를 통해 나오며 그렇게 산출된 내용이 원리 원칙과 직결된다고 표현할 수 있을 만큼 직접적인 상관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다.

인간의 뇌 속에 언어 능력이 실존한다.

채 교수의 ‘인지과학으로서의 언어학: 심리/신경 언어학적 측면을 중심으로’란 논문의 결론부에는 ‘인간의 뇌 속에 언어 능력이 실존한다’는 내용이 있다. 채 교수는 이에 대해 “인지과학의 관점으로 언어를 연구하는 기본전제”라고 설명했다. 인지과학적 관점으로 연구한다는 것은 곧 뇌 속에 실제로 지각되는 것에 대해 연구한다는 뜻이다. 그렇기에 인지과학적 관점으로 언어학을 연구하기 위해선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이 머릿속에 있다는 전제를 가정해야만 연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인지과학으로서의 언어학이 응용되는 분야는 무궁무진

인지과학은 아주 폭이 넓은 학문이다. 어떠한 학문을 연구할 수 있는 관점을 제공해주는 학문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관점에서 보는 언어학의 응용분야 또한 무궁무진하다. 한 예로 본래 의미 없는 음파일 뿐인 소리를 머릿속에서 단어로 인식해 언어로 처리하는 음성인식 분야가 있다. 이는 흔히 번역기라고 말하는 기계번역, 중요도를 따져서 글을 요약하는 요약시스템, 단어 자체의 속성을 이용한 검색 등 언어자료처리에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에 응용된다.

채 교수 역시 인지과학의 다양한 분야를 보여주는 한 사례다. 원래 채 교수는 언어학을 전공했는데 이를 연구하는 과정 중에 자연스럽게 인지과학의 관점으로 언어학을 바라보는 연구까지 도달하게 됐다고 한다.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문법

채 교수의 강의 중 하나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문법’이다. 이에 대해 채 교수는 “모국어로서 인식하는 한국어 문법과 외국어로서 인식하는 한국어 문법은 차이가 있다”며 이에 대해 “우리나라 사람이 한국어 문법을 이해하는 데에는 특별한 절차가 필요 없지만 외국인에게 가르칠 때는 학생에게 맞는 2차 가공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채 교수는 우리나라 사람에게 가장 효과가 좋은 영문법 책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람이 가장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영문법 책은 한국어와 관련해 영문법을 설명해주는 책이다. 그 이유는 인지과학에서 찾을 수 있다. 한국어를 모국어로 가지고 살게 된 우리나라 사람은 머릿속에 한국어 문법이 이미 자리잡고 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지금까진 모르던 내용이 들어오려 하니 이미 알고 있던 모국어의 간섭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다. 비슷한 원리 때문에 어린아이보다 나이 든 사람이 언어를

“외국인에게
가장 좋은 한국어 교육법이
딱 하나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그 사람의 모국어가
무엇이냐에 따라
한국어 교육의 내용도
달라져야 한다”

배우기 어려운 현상이 발생한다.

그런데 이 현상을 역으로 생각하면 가장 효과적인 외국어 습득 방법을 알 수 있다.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는 모국어 문법과 새로 배우려는 외국어 문법을 비교해서 공부하는 것이다. 이 방식은 이해도 쉬울 뿐 아니라 모국어 문법이 외국어 문법 습득에 도움을 주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채 교수는 “외국인에게 가장 좋은 한국어 교육법이 딱 하나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그 사람의 모국어가 무엇이냐에 따라 한국어 교육의 내용도 달라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바로 이것이 모국어로서의 한국어 문법과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문법의 차이인 것이다.

또 하나의 방법은 규칙화다. 규칙화는 모국어의 문법 현상을 잘 알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문법 현상에 대해 듣는 사람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상대방의 모국어와 비교하며 규칙화하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단순히 추상적인 개념이던 문법 개념이 구체적인 하나의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채 교수는 ‘모자라다’와 ‘부족하다’로 규칙화의 한 예를 들었다. 두 단어는 같은 뜻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하나는 동사고 다른 하나는 형용사다. 이 둘을 구분하는 방법은 현재형을 만드는 것이다. ‘모자라다’의 현재형은 ‘모자란다’로 형태가 변하는 반면에 ‘부족하다’의 현재형은 부족하다로 형태가 바뀌지 않는다. 이러한 현상을 분석해 ‘현재형으로 만들었을 때 형태가 변하지 않으면 동사이다’라는 규칙을 만드는 것이다.

효과적인 외국어 학습법

채 교수는 이어 효과적인 외국어 학습법에 대해 “어린아이가 말을 배우듯 공부하는 것”을 추천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언어 공부를 책상에 책을 펴놓고 앉아서 한다. 하지만 채 교수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했다. 대신에 짧게 발췌된 글이 아니라 자신이 관심 있고 자기 수준에 맞는 하나의 글을 들고 다니며 읽을 것을 추천했다. 처음엔 잘 이해가 안 되더라도 이해되는 문장을 바탕으로 문맥을 형성해 읽고 또 읽으면 점점 그 글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진다는 것이다. 그런 식으로 계속 읽어가다보면 외워지기 마련이고, 이렇게 외운 구절은 쓰기에서도 적용이 된다고 전했다. 이처럼 문맥을 통해 이해하고 모르면 다시 보는 방법이 바로 아이들이 말을 배우는 과정과 같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거쳐 어느 정도 수준이 향상되면 글을 써보고, 잘 정리된 책을 참고해서 자기 글을 스스로 교정하며 실력을 쌓을 것을 추천했다.

채 교수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정말로 필요한 것은 많은 양의 지식 습득이 아니다. 다만 한 가지 내용에 대해 치열하게 고민하고 더 많이 사고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이런 면에서 채 교수는 “언어 습득 과정에는 왕도가 없다”고 이야기한다. 그러나 앞서 제시한 방법으로 일 년 정도만 공부하면 지금보다 월등히 수준이 높아질 것이라고 단언했다.

채 교수는 앞으로 “박사학위 이후 지금까지 연구해온 한국어 통사론과 형태론에 대해 더 연구해볼 예정”이며 더 나아가 “그 내용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 연구하려 한다”고 이야기했다. 이어 “전산, 언어처리, 검색, 기계번역 같은 곳에 응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처럼 언어인지과학과에서 다루는 언어학과 인지과학은 아주 광범위한 내용을 담은 학문이다. 외국인에게 언어를 가르칠 때도 사용될 수 있고 타인의 언어 현상을 연구하는 데에도 사용될 수 있다. 언어인지과학에 관심이 생겼다면 지금 하는 외국어 공부에도 적용해보는 것이 어떨까.

글 김정혁 기자 89ginpaldduk@huifs.ac.kr
사진 이진형 기자 89matteo@huifs.ac.kr

〈채희락 교수님 추천 논문〉

- 접어와 한국어 품사 분류 : 품사 재정립 및 띄어쓰기 재고 = Clitics and a Classification of Parts of Speech in Korean 채희락 (언어, Vol.32 No.4)[KCI등재]2007
- 영어 공용화론 비판의 허와 실 : 김영명 『나는 고발한다』(한겨레신문사 2000)/한학성 『영어 공용어화, 과연 가능한가?』(책세상 2000) 채희락 (언과 밖, Vol.10)[KCI등재]2001
- 언어 중립성과 언어 기반 온톨로지 = Language Neutrality and Language-Based Ontologies 채희락(Hee-Rahk Chae) (언어학연구, Vol. - No.22)2012

- 조기 영어 교육 관련 논쟁: 이론, 현황 및 방향성 = Controversies over Early English Education: Theories, the Present State and Directions 이하원 (Ha Won Lee) 채희락 (Hee Rahk Chae) (언어학, Vol.19 No.3)[KCI등재]2011
- 언어와 인지과학: 심리/신경언어학적 측면을 중심으로 = Language and Cognitive Science 채희락 (言語와 言語學, Vol.27)[KCI등재]2001

뒷담하는 기자

취재 뒷이야기

김다정 기자

어깨너머 듣는 교양

김태희 (교양학부 영화의 이해와 감상 강사)

순간의 기록



글을 쓰는 것은 기본이요, 사진을 잘 찍는 것 또한 기자의 본분이다. 본지 내에는 ‘일시정지’라는 코너가 있다. 사진을 담는 코너인데 지난 학기 필자가 담당했다. 다른 기사를 쓰는 것보다도 나는 이 코너가 훨씬 어려웠다. 기사와는 달리 사진을 통해 공감을 이끌어내야 하고, 사진에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를 담아내야 하기 때문이다. 필자는 사진을 잘 찍는 편도 아니었고 생각보다 찍을만한 소재를 찾는 일이 쉽지 않았다. 그래서 다른 기사들보다 가장 늦게 마감하기 일쑤였다.

그러던 중 풀리처상 사진전을 관람하게 됐다. 풀리처상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듯이 ‘잘 찍은 사진’을 선정해 주는 상이다. 잘 찍은 사진의 기준이라고 하면 구도와 명암, 색감을 잘 표현한 사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풀리처상은 그런 사진 콘테스트가 아니다. 이 상의 잘 찍은 사진은 다소 충격적이었다. 대부분의 사진들이 전쟁, 기아에 관련된 자극적인 사진이었다. 상을 받은 사진들 속에는 기자들의 고민과 치열함,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어렵게 사진을 찍었는지가 담겨있었다.

풀리처상의 기자들은 진실을 전달하고 보여주기 위해 발로 뛰었다. 이 상을 받았던 케빈 카터는 “사진으로라도 알려야겠다는 사명감에서 카메라를 든다”고 말했다. 사진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 순간의 기록은 세상을 바꾸며 글로는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을 보여준다. 풀리처상 사진전은 그런 사진의 힘을 느낄 수 있었던 좋은 경험이었다.

‘뱅뱅클럽(bang bang club)’은 위험한 남아프리카공화국 전쟁터에서 두려움 없이 용감하게 그 현장을 취재하던 네 명의 기자를 일컫는 말이다. 이들의 이야기는 영화로도 만들어졌는데 이 영화 속에는 기자로서의 의무와 인간적인 윤리 사이의 딜레마와 이로 인한 고통이 드러나 있다.

뱅뱅클럽에 속한 기자인 케빈 카터의 대표적인 작품이 ‘굶주린 소녀와 독수리’다. 굶주린 소녀를 위협하고 있는 독수리에게서 소녀를 구하지 않았으며 대중들은 그를 비난했다. 기자가 아닌 사람으로서의 윤리를 원한 것이다. 하지만 분쟁지역을 취재하는 이들에게는 그곳을 알려야한다는 기자의 본분이 있다. 그가 사진을 찍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그 소녀의 상황조차 알 수 없었을 것이다.

케빈 카터라고 소녀를 구하고 싶지 않았을까. 그도 서터를 누르기까지의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엄청나게 많은 고민을 했을 것이다. 그의 사진 뿐만 아니라 풀리처상 사진전의 모든 사진이 저마다의 고민을 담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기자의 사진은 언제나 고민의 연속이다. 필자 또한 항상 다른 이들의 삶을 한 장으로 보여주기 위해 치열하게 고민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며 사진을 바라봤다.

현대는 이미지 과잉의 시대라 할 만하다. 버스나 지하철을 타면 사람들은 으레 스마트폰을 꺼내 들고 영화나 방송을 보며 목적지에 도착하는 시간 동안 지루함을 달랜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직접 만든 이미지를 유튜브나 페이스북에 올려 공유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러한 이미지의 풍요로움 속에 사는 우리는 역설적이게도 쏟아지는 이미지에 시각을 지배당하며 공허한 마음에 빠져든다. 어떤 영화를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전에 여기저기 물려드는 무수한 광고의 이미들은 너도나도 이 영화 혹은 저 영화를 꼭 봐야한다며 아우성친다. 이러한 이미지 과잉의 시대에 영화를 배우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런 질문으로부터 영화의 이해와 감상 수업은 시작된다.

그렇다면 영화를 감상하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영화를 이해한다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사람이나 사물에 대해서 단순한 느낌의 차원을 넘어 이해로 나아간다는 것은 표면에서 내면으로 관심이 전환됨을 뜻한다. 사실 모든 이미지들은 태생적으로 표면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 화면에 보이

영화와 소셜네트워크

는 모든 이미지는 화면상의 모습일 뿐 실제와는 다르다. 19세기를 대표하는 프랑스 작가 중 하나인 스탕달은 문학이 ‘사회적 현실을 반영하는 거울’과 같다고 말한 바 있지만, 어떻게 보면 화면으로 삶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영화야말로 스스로의 삶을 반추하게 해주는 가장 강력한 도구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영화를 이해한다는 것은 허구를 거울삼아 현실의 삶을 돌아켜보게 해준다는 데에 그 의미가 있다. 더해 비록 완전한 실체가 아닌 허구라 할지라도 이에 적합한 통일성을 부여하며 삶의 전반을 통찰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은 캐릭터와 플롯의 힘일 것이다.

영화를 단순한 감상에서 이해로 전환하는 행위의 또 다른 의미는 서로 간의 진정한 소셜네트워크를 구축할 가능성을 열어 준다는 점이다. 두 친구가 같은 영화를 보러 갔다고 하자. 사실 함께 볼 영화를 정하는 것 자체도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것보다 더 까다로운 상황은 함께 관람한 친구가 영화에 대해 나와 다른 느낌을 갖게 됐을 때이다. ‘와, 영화 대단하다’, 혹은 ‘생각보다 별로네’라며 영화관 문을 나설 때 가지는 상충되는 감정이나

생각은 불편한 침묵과 함께 ‘이제 이 친구와 영화 보면 안 되겠다’는 결심으로 끝맺기도 한다.

영화에 대한 느낌은 각기 다를 수 있다. 그 느낌은 설득될 수도, 그럴 필요도 없다. 하지만 자신들이 영화를 보고 ‘이해’한 것은 함께 공유될 수 있다. 현대 사회에서 소셜네트워크가 사회적인 이슈로 부상하고, 그래서 자의든 타의든 우리는 항상 다른 이들과 매체로 연결돼 있다. 하지만 또한 그 어느 시대 못지않게 오늘날까지도 혼자라는 외로움이 상쇄되지 않는다. 그 까닭은 다른 사람의 차이를 이해하거나 나를 이해시키려하지 않고, 막연히 어딘가 있을 딱 맞는 이상적인 친구를 찾아 헤매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는 「영화의 이해와 감상」이라는 강의에서, 이미지를 통해 보이는 것 이면의 보이지 않는 것들이 어떻게 소통의 계기를 만드는지를 살펴본다. 영화 이미지가 어떻게 세상에 태어나 시대를 거쳐 오늘날까지 진화해왔으며, 각기 다른 생각을 지닌 인간들 간의 소통을 어떻게 가능케 해왔는지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서로 간의 더욱 인간적인 소셜네트워크를 완성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일시
정지

가을 성큼, 마중 나온 코스모스



무더웠던 여름이 가고 가을이 오나 보다. 가을의 상징인 코스모스가 하나둘씩 앳된 얼굴로 마중을 나오고 있다. 가을이 오면 설레는 마음으로 정통 속에 넣어두었던 긴팔 옷들을 꺼내 입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코스모스 길을 걸어보는 건 어떨까.

이진형 기자 89matteo@hufs.ac.kr

외대학보 독자위원회를 모집합니다

2014년 2학기 동안 외대학보를 비평해 주실 독자위원을 모집합니다.

- ◆ **활동내역** 2014년 2학기 외대학보 974~979호 비평 후 비평문 작성(총 6회, 개인 당 2회)
- ◆ **모집단위** 서울배움터 3명 / 글로벌배움터 3명
- ◆ **모집기간** 9월 17일(수)까지 / 18일 합격자 발표
- ◆ **지원방법** 학교 공지사향에서 지원서 다운 또는 학보사에서 지원서 수령 후 학보사에 직접 제출 또는 이메일 제출
서울배움터 88daisy@hufs.ac.kr
글로벌배움터 89baquillbullae@hufs.ac.kr
- ◆ **지원자격** 학부생, 대학원생, 교직원 등 성실하게 참여할 수 있는 외대 구성원
- ◆ **활동혜택** ① 비평문에 대한 소정의 원고료 지급
② 외대학보 독자위원 수료증 지급
③ 기념품 지급
- ◆ **문의** 서울배움터 김다정 기자 010-9996-5104
글로벌배움터 유다송 기자 010-4443-2000

독자위원이 써 주신 비평문은 매 호 외대학보에 실립니다. 학보도 꼼꼼히 읽고, 사람들과 만나 토론하고 싶은 지식인을 환영합니다.





국·부장 고정칼럼

국민건강이 이윤추구의 대상으로?

▲‘1년 전 미국생활 중 갑작스럽게 심한 두통과 함께 구역질이 났다. 병원에 가니 지주막하출혈이라 머리를 절개하고 수술을 해야 했다. 직업이 배우인지라 고민이 많았다. 어렵게 수술을 끝냈고 병원은 5억을 요구했다. 처음에는 잘못들은 줄 알았지만 병원은 분할납부도 가능하다는 흥정을 했다’ 지난해 배우 안재욱이 겪은 일이다. 대표적인 의료민영화 사회인 미국은 병원치료비가 집 한 채의 값을 능가한다.

▲이런 의료민영화에 대한 우려가 우리나라의 현실이 되고 있다. 의료민영화법으로 불리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7월 말 입법예고 기간이 만료됐다. 이에 현재 126만여명이 반대서명 했고, 지난 27일 서울대병원 노동조합이 의료민영화 저지와 병원 정상화를 내건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다. 이어 28일에는 부산대병원이 개원 이래 58년 만에 처음으로 필수 유지인력

을 제외한 시한부 종파업을 시행했다. 이철희 두문정지전략 연구소장은 “철도민영화를 수류탄에 비유하자면 의료민영화는 핵폭탄 수준”이라고 말한 바 있다. 그만큼 현재 우리나라 국민건강은 위태로운 상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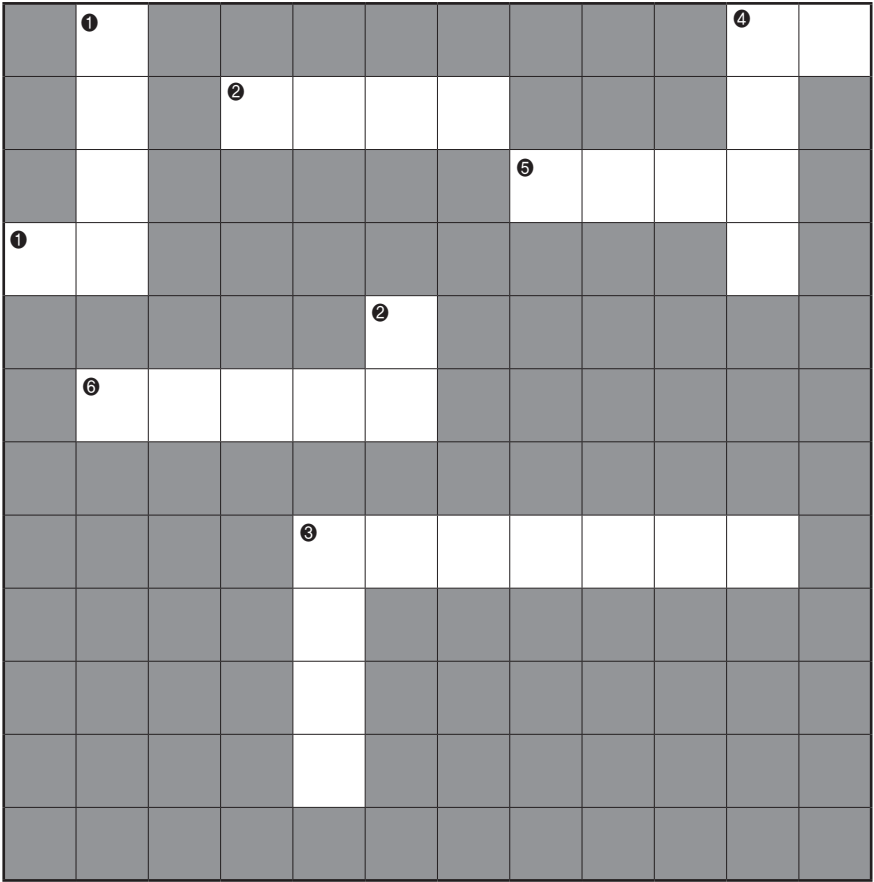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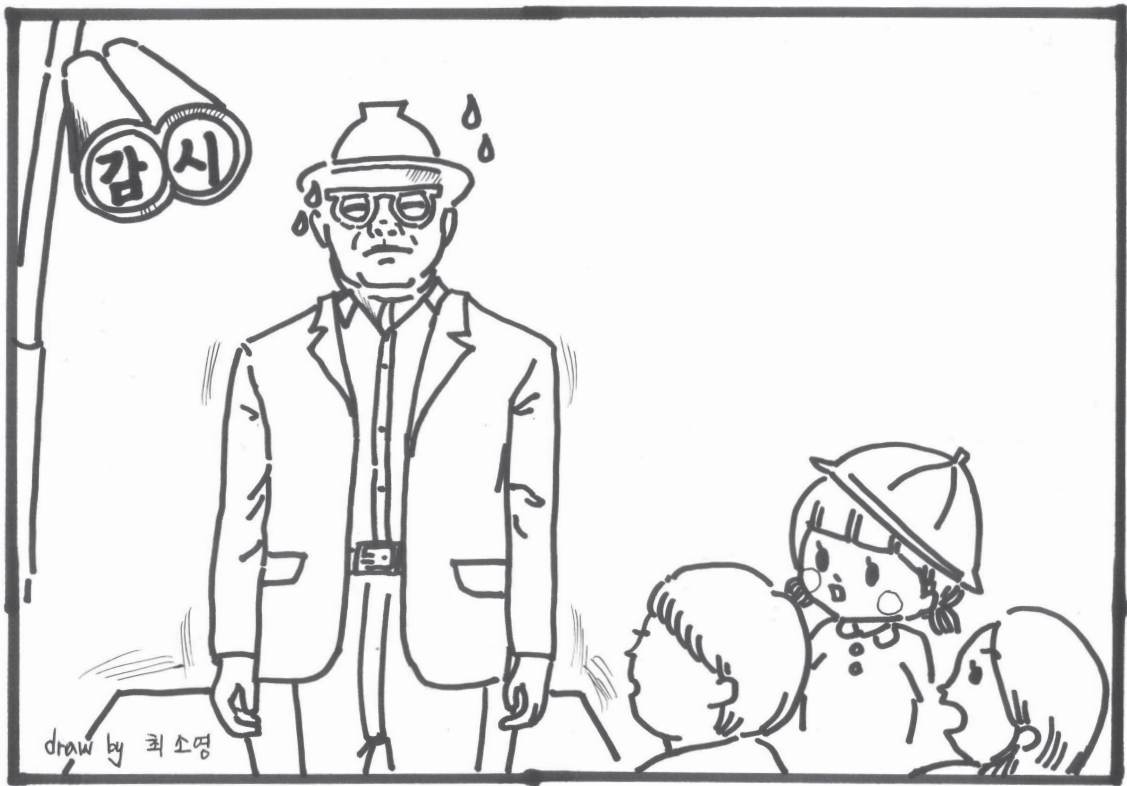
▲‘의료영리화’ 정책은 참여정부, 이명박 정부 역시 추진해온 정책이다. 하지만 국민적 저항으로 성사될 수 없었다. 이에 박근혜 정부는 반대여론을 예상하고 법 개정 없이 영리자회사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해 12월 발표한 ‘제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이 그것이다. 주요내용은 의료법인(대부분 중소병원)이 자회사를 설립해 부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의 부대사업에 주차장, 장례식장뿐만 아니라 의약품, 의료기기, 의료용품 등을 포함시켰다. 지금도 의사들의 과잉진료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돈이 아닌 환자를 위한 진료가 가능할지 의문이다.

▲영리자회사 설립허용은 영리병원의 우회적 허용이나 다름없다. 현재 의료법인은 비영리법인으로 투자수익을 가져가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한다. 그러나 이번 활성화 대책으로 의료법인에서 발생한 수익이 영리자회사를 통해 합법적으로 빠져나갈 수 있게 된다. 영리자회사는 결국 재벌의 이익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지 않을까.

▲미국은 맹장수술에 약 1500만원이 든다고 한다. 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면 약 6천만 원이 든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병원비는 흥정도 가능하다. 의료영리화가 실현되면 당장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누구라도 아프면 돈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은 이상적인 발상으로 취급되는 현실이다. 국회를 거치지 않고 대통령 시행령으로 추진한 이번 대책은 국회의 입법기능과 국민을 무시하는 행위다.

만 평



- 가로**
- 현재 우리학교는 김흥배 00 설치가 논란이 되고 있다. (2면 참조)
 - 서울배움터가 진행할 베틀시장 행사 이름. 플리마켓 0000. (2면 참조)
 - 우리나라는 이번 0000000의 개최지다. (12면 참조)
 - 훈자마을 북쪽에 있는 지역. 대규모 산사태로 이 지역을 가는 길이 호수가 됐다. (7면 참조)
 - 글로벌배움터 학생들은 빨간0000를 타고 통학을 한다. 현재 0000의 입석이 허용됐다. (4면 참조)
 - 고은정씨는 대한사이클연맹 국제업무 000000다. (12면 참조)

- 세로**
- 미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보도·문학·음악상. 이 상의 보도사진 부문 수상작들을 예술의 전당에서 9월 14일까지 전시 중이다. (10면 참조)
 - 트레킹에 필요한 짐을 지고 산을 오르는 일을 하는 사람 (7면 참조)
 - 지식이나 지능, 지각과 같이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연구하는 학문 (9면 참조)
 - 훈자마을이 있는 나라. (7면 참조)

꼼꼼히 푸셨나요? 퍼즐에 정답을 적고 촬영해 외대학보 페이스북 계정 친구 추가 후 메시지로 보내주세요. 정답을 맞추신 분께는 추첨을 통해 1명에게 영화예매권 2장, 또 다른 1명에게 커피 교환권을 드립니다.

사설

돌아보는 용기

우리는 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살아간다. 고교시절에는 대학진학을 위한 공부에, 대학 입학 후에는 생소한 학문과 수업방식에 적응하기 위해 분주히 하루를 보낸다. 뿐만 아니라 스피크 쌓기, 인터넷, 휴대폰, 텔레비전 등으로도 정신이 없다.

하지만 정작 자신이 누구이고 어떤 두려움이 있는지를 돌아보고 점검할 시간을 갖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어쩌면 우리는 자신의 참 모습을 일부러 외면하는지도 모른다. ‘성찰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고 소크라테스는 말했다. 2학기를 맞아 지난 학기를 되돌아보고 신년 계획의 설계를 수정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우리는 때때로 분노, 두려움, 열등감과 같은 부정적 감정을 경험한다. 이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겪는 자연스런 현상이다. 하지만 그것을 인정하고 그 원인을 밝혀 가는 것은 쉽지 않다. 보통 그런 감정은 회피하거나 억압하고 그 원인을 외부로 전가한다. 예를 들어 우리학교에는 지난 해 기준 80명의 외국인 교원이 외국어 교육을 한다. 그런데 일부 학생들은 실수를 겁내며 외국인 교수와 자유로운 대화 한번 나누지 못한다. 두려움으로 외국에 취업하거나 유학은 꿈도 꾸지 못한다. 그리고 그 이유를 자신이 아닌 주변 환경이나 사람에게 돌린다.

심리학자들은 우리의 부정적 감정은 주로 무의식의 세계가 표출되는 것이라고 말한다. 또한 무의식에는 무한한 발전의 에너지가 잠재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가 부정적인 감정을 억압하고 회피할 때 무의식에 내재하는 자신감을 비롯한 긍정적인 요소들도 함께 눌러 살아나지 못하는 것이다. 타 행정조직과 비교해 뚜렷한 조직문화를 가지고 있는 경찰과 검찰 조직의 경우 내부 인트라넷을 통해 조직원이 불만을 털어낼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고 있으며 나아가 이를 통해 조직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변화와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고 있다.

우리는 저마다 다른 소질과 능력, 그리고 가능성을 가지고 살아간다. 하지만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나 열등감이 우리의 발목을 잡는다. 2학기에는 자신을 돌아보는 용기를 갖자. 열등감이나 두려움에 떠는 자신의 문제를 외부로 탓하며 다가오는 기회를 놓치지 말자. 오히려 그것을 직면하고 그 실체를 깨닫는다면 자신감과 도전감이 생겨날 것이다. 우리는 젊고 기회는 많다. 자신을 깊이 성찰하며 희망과 용기가 가득한 2학기가 되길 소망한다.

설립자 동상 설치, 충분한 재논의 거쳐야

지난 학기부터 끊임없는 논란에 휩싸였던 우리학교 설립자 고(故) 김흥배 박사 동상이 결국 글로벌배움터 명수당에 자리를 잡게 됐다. 8월 1일 동원육영회와 총동문회는 오전 7시 경 동상을 세우고 그 주변에는 감시 카메라와 가로등까지 함께 설치했다. 고(故) 김흥배 박사의 동상 설치와 그의 친일 행적에 대한 학생들의 비판은 지난 3월부터 계속돼왔다. 그러나 재단 측은 우리학교를 설립한 공이 친일 행적보다 크다며 뜻을 바꾸지 않았다. 서울배움터에 동상을 세우려던 계획이 한 번 꺾인 이후, 재단과 학교가 글로벌배움터로 장소를 옮겨가며 이러한 의지를 다시 한 번 보여준 셈이다.

그러나 동상 설치에 성공한 것만으로 그 뜻을 온전히 이뤘는지는 고개를 가웃거리게 된다. 누군가의 동상을 세운다는 것은 그의 공로를 기리기 위함이다. 고(故) 김흥배 박사의 동상 또한 본 목적은 우리학교를 설립한 뜻을 기념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동상 설치의 구상원들간의 합의 없이 추진하는 바람에 오히려 본래의 목적을 이뤘다고 말할 수 없게 된 것처럼 보인다.

동상을 설치한 것만으로 학생들이 고(故) 김흥배 박사를 존경하고 기념할 수 있게 될지 마음 한 켠에 의문이 남는다. 세우는 데 급급해 학생들의 동의를 얻지 못했기에, 감시 카메라와 함께 서 있는 설립자 동상이 가시방식에 앉아있는 것 같다고 하면 지나친 상상일까.

동상 설치 후 서울배움터 총학생회와 글로벌배움터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를 철거할 것을 입을 모아 요구하고 나섰다. 물론 어떻게 보면 당장 동상을 철거하자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주장일 수 있다. 그러나 학교는 누구 한 사람의 것이 아니기에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한 새로운 합의점을 도출해야 한다. 이를 위해 반드시 재논의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외대학보는 독자의 의견을 통해 빛이 납니다.

독자기고	지구촌을 읽다(15매) / 외대인이 만난 세계(8매) / 어깨너머 듣는 교양(7매)
소정의 선물	독자기고를 해주신 분들께는 소정의 원고료와 기념품을 지급합니다.
기사제보	facebook.com/newhufspress 편집장 임수진 010-4257-9732, 87curious@hufs.ac.kr

외대학보

창간 1955년 4월 11일

발행인 김인철

편집인 겸 주간 오종진

편집장 임수진

부장 최소영

제작 경보미디어 | 인쇄 중앙일보

학생기자실 (서울) 02)2173-2504 / (글로벌) 031)330-4112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외대로 81

www.oedaeahagbo.com

facebook /newhufspress

사이클계의 멀티플레이어

고은정(불어 05) 대한사이클연맹 국제업무 코디네이터

사이클계를 위해 지금 이 시간에도 동분서주하는 그녀. 토익 만점을 세 번이나 받고 어린 시절을 네덜란드에서 보내 영어·불어·네덜란드어 3개 국어에 능통한 실력파다. 이런 그녀가 대기업 대신 스포츠계에 뛰어든 이유에서부터 도핑검사 뒷이야기까지, 고은정의 모든 것을 파헤쳐보자.

Q. 국제업무 코디네이터는 매우 생소한 직업이다.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가?

국내에서 국제대회가 개최되면 팀 초청에서부터 심판들을 선정하는 일까지 전반적인 대회 준비를 담당한다. 그리고 우리나라 국가대표팀이 해외 대회에 참가하면 선수들의 전반적인 생활을 준비해준다. 항공편과 숙소를 예약하고 그 나라의 교통편을 조사해서 알려주며 참가하는 대회의 참가자 명단을 작성해준다. 또 국제대회에서 서신이나 공문이 오면 번역하기도 한다. 요즘에는 8월 25일부터 29일까지 열리는 제 14회 인천광역시장배 전국사이클대회를 준비 중이다. 종목도 많지 않고 네 팀 정도밖에 참가하지 않는 작은 대회지만 선수들의 명단을 받는 등 대회의 전체적인 운영을 담당하고 있다.

Q. 대학 시절 어학을 전공했는데 스포츠계로 진출한 것이 독특하다. 스포츠 행정가가 되고 싶었던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꼭 행정가가 되고 싶었던 것은 아니다. 스포츠 쪽에 관심이 있어서 관련 직업을 찾던 중 때마침 체육인재육성재단에서 시행하는 ‘국제전문인력 지원사업’을 알게 됐다. ‘국제전문인력 지원사업’이란 연맹이나 협회에서 국제업무가 가능한 사람을 뽑으면 돈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이로 인해 30개가 넘는 단체에서 국제업무 관련 일자리가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다. 30군데 중에 10군데를 지원했는데 여기 대한사이클연맹 한 군데 붙었다.(웃음)

Q. 대학 시절에는 스포츠 행정가가 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했나?

대부분의 학생들처럼 1,2학년 때는 많이 놀았지만 4학년 때는 스포츠 관련 자원봉사를 많이 했다. 평창 올림픽 위원회에서 계획한 드림 프로그램에 통역 자원봉사로 참여 한 적이 있다. 이는 눈을 접하기 힘든 곳에 사는 아이들에게 스키와 스노우 보드를 무료로 강습해주는 행사다. 그 다음 해에는 국내에서 개최한 스노우 보드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통역 일을 했다. 또한 부산에서 열린 IOC포럼에 자원봉사를 지원한 적도 있고 스포츠 업체에서 한 달 동안 인턴으로 일하기도 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작은 일도 마다하지 않고 참여했던 것이 많은 도움이 된 것 같다.

Q. 스포츠 행정가가 된 후에도 준국제심판과 도핑검사관 자격증을 취득했는데 특별한 계기가 있는가?

예전에 우리나라 국내심판을 위한 강습회를 개최한 적이 있다. 이 강습회를 수료하기만 하면 국제심판 자격이 주어졌다. 그러나 해외 강습회다 보니 영어로 시험을 봐야 하는데 우리나라 사이클계에서 영어가 능숙한 인물이 많지 않았다. 그래서 연맹 측에서 한 번 시험에 응시해 보라고 추천해 자격증을 따게 됐다. 도핑검사관은 친한 도핑 검사관들이 시험 일정이 공지됐다면 권유해서 지원했는데 합격했다.

그녀는 스포츠 행정가와 준국제심판, 도핑검사관이라는 세 가지의 일을 병행하며 ‘사이클계의 멀티플레이어’에 걸맞은 삶을 살고 있다. 준국제심판, 도핑검사관의 일을 계속 수행하려면 정기적으로 검사도 나가야하고 시험도 치러야 하지만 “본업인 행정 업무가 바빠 자주 나가지는 못한다”며 미소를 지었다. 그래도 그녀는 틈틈이 휴가를 내어 스포츠 행정 외에 도핑검사, 준국제심판과 관련된 일을 하기도 하는데 그럴 때면 행정업무 선배들이 잘 다녀오라며 흔쾌히 보내줘 자신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수 있다고 한다.

“큰 것부터 볼 필요는 없다.
길게 보고 작은 일부터 찾아서 해라.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에
아르바이트나 행사로 조금씩 참여해라.
현장을 다니며
실전 감각을 익히고
사람들의 얼굴을 익히는 것이 중요하다”

“꼭 대기업에 목매기보다는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했으면 한다.
잘 찾아보면
자신이 개척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이 많다.
내가 원하는 일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 더 많다”

Q. 심판이나 도핑검사관으로 일하며 겪었던 재미있는 일화가 궁금하다.

한번은 경기가 일찍 끝나길 기대하며 경기가 시작할 즈음인 오전 11시에 벨로드롬(주로를 비탈지게 만든 사이클 전용 경기장)을 찾았다. 하지만 단승에서 승부가 나지 않으면 연습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기대와 달리 경기가 늦게 끝나고 말았다. 경기가 끝나고 나니 오후 6 시쯤이었다. 오랜 기다림 끝에 도핑테스트를 하는데 한 선수가 계속 소변을 보지 못했다. 그래서 같이 저녁을 먹고 원활한 검사를 위해 맥주도 먹었다. 결국 간신히 도핑테스트를 끝마쳤는데 시간을 보니 오후 11시였다. 재미있는 일화보다는 애로사항에 더 가까운 것 같다.(웃음)

Q. 최근에 열렸던 세계주니어사이클선수권대회에서는 어떤 업무를 맡았나?

국제사이클연맹과 연락하는 일을 주로 담당했다. 정해진 매뉴얼에 딱 맞춰서 대회를 진행해야 하는데 맞추기 힘든 부분이 있을 때마다 국제사이클연맹과 끊임없이 조율해 합의점을 도출해냈다. 경기장 안에 있는 물품에서부터 선수 숙소, 교통편까지 대회의 전반적인 부분을 담당했다.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경기 준비도 내 담당이었다.

Q. 앞으로 있을 인천아시안게임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

인천아시안게임은 조직위원회가 따로 구성됐다. 우리나라는 아시안게임 개최국이기 때문에 조직위에서 문의를 많이 들어온다. 9월 중순부터는 대한사이클연맹도 조직위원회로 들어갈 예정이다. 사무실 자체가 인천으로 옮겨진다. 그곳에서도 국제 업무를 주로 담당할 것 같다.

Q. 본인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행정가의 모습이 궁금하다.

사실 스포츠 행정가가 이름만 거창하지 일반 사무직과 크게 다른 것은 없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 처리와 정리를 잘하는 사람이 좋은 행정가라고 생각한다. 또한 여러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게 준비를 잘해야 좋은 행정가라고 할 수 있다. 선수들뿐만 아니라 심판들도 관리를 잘 해주어야 대회가 잘 운영된다.

Q. 그렇다면 스포츠 행정가가 되기 위한 자질이나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스포츠계는 행정직도 사람들이 매우 활동적이다. 그래서 이들을 맞춰줄 수 있는 활발한 성격이 유리하다. 책상에만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과 원활한 관계를 유지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선수 출신이 많다보니 기가 센 사람이 많다. 이런 사람들과도 대인관계를 잘 유지해야 스포츠계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또 서류 정리 능력도 필수적이다. 내 업무 정리를 잘해서 정보를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필요한 내용을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Q.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목표나 계획이 어떻게 되나?

나는 사소하고 작은 일부터 시작했다. 꼭 큰 그림을 보고 시작하지 않아도 괜찮다. ‘현재에 행복하자’는 주이다. 현재에 최선을 다하면 다음에 더 나은 미래가 올 것이라 생각한다. 그래서 지금 딱히 정해진 꿈은 없다. 하지만 지금처럼 조금씩 내 자신을 발전시키면 언젠가는 큰 사람으로 성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대단하지만 이야기를 나눠보면 친근하고 소박하게 느껴지는 그녀. 당장의 부와 명예보다는 소소하더라도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쫓아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점에서 진심으로 좋아하는 것을 찾아서 하라는 그녀의 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글 이진형 기자 89matteo@huifs.ac.kr
사진 임정혁 기자 89ginpalduuk@huifs.ac.kr